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75호

Monday, March 25, 2024 A

##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137명 사망'

(24일 오후 기준)

모스크바 6200명 모인 공연장 공격  
총기·폭발물 쓴 용의자 전원 검거  
푸틴 “범인들 우크라이라 도주 시도”  
IS, 비상계단 방화 등 범행영상 공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성공 직후 모스크바에서 초대형 테러  
가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타스통신·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  
국(FSB)은 전날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  
스노고르스크의 크로코스 시청 공연  
장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  
뜨린 용의자 4명 등 관련자 11명을 전부  
검거했다. 사망자는 어린이 3명 등 130  
명을 넘는다. 부상자 120여 명 중 44명  
이 위중하다. 이번 테러는 2004년 9월  
체첸 반군이 러시아 남부 베슬란초등  
학교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대치하다  
인질 34명과 테러범 31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사건이다.

용의자들은 지난 22일 밤 모스크바  
에서 남서쪽으로 340km 떨어진 브란스  
크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복해 달  
아나다 검거됐다. 이들이 탄 흰색 르노



1 지난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사건이 발생한 크로코스 시청 공연장의 모습. 2 시민들이 공연장 근처 사건 현장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로이터-EPA-연합뉴스)

차량에서 마카로프 권총, AK-47 소총  
개량형인 AKM 돌격 소총 탄창, 타지  
키스탄 여권 등이 발견됐다. 러시아 국  
영방송 RT에 따르면 1988년생이라고  
밝힌 한 용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누  
군가의 사주를 받았으며, 테러 대가로  
50만 루블(약 730만원)을 받기로 했  
다고 주장했다.

22일 테러는 러시아의 록밴드 피크  
닉 공연에 모여든 관객들을 겨냥했다.

객석 6200석은 매진된 상태였다. 로이  
터통신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방탄조끼  
를 입은 채 오후 7시40분쯤 르노 차를  
타고 공연장 근처에 도착했다. 4명의  
테러범은 공연 시작 5분 전 출입구로  
들어닥쳐 무차별 총격을 시작했다. 유  
리 출입문이 깨지고 문 앞을 지나던 사  
람들이 쓰러졌다. 이어 공연장 안으로  
들어와 관객들을 조준 사격했다.

2면 '테러'로 계속 백일현·박형수 기자

## 미국 정가 발각 뒤집은 로버트 허 특검 '한국식 교육' 꺼내며 한말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한 보고서로 미  
국 정가를 발각 뒤집은 한국계 미국  
인 로버트 허(51·사진) 연방 특별검  
사의 인터뷰가 22일 뉴욕에 실렸  
다. 논란의 보고서가 나온 뒤 그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버  
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  
임하던 시절(2009년 1월~2017년 1  
월) 백악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에 대해 허 특검이 1년간 수사한 기  
록과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이  
담겼다.

바이든의 기억력 상태 등  
으로 미뤄 기소하더라도 배  
심원단을 상대로 유죄로 설  
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  
용이 공개됐을 때  
공화당은 “바이  
든을 기소하지 않

았다”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대통  
령에게 정치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공격했다.

뉴욕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 기밀문서를 무단으  
로 소지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허 특검이 그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해 물었다. 허 특검은 범죄가 성  
립되려면 ‘의도적 보관’이어야 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이를 소  
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게  
분명해 보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서가 보관돼 있던 차고는 빈 양  
동이나 심하게 손상된 상자 등 쓸  
모없는 물건을 쌓아둔 곳으로,

허 특검은 보고서에 “이 곳은  
중요한 기밀문서를 의도  
적으로 보관해둔 장소  
로 보이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박형수 기자  
4면 '로버트 허'로 계속



## 선관위의 재외선거 조사, 국제법 위반 소지

애틀랜타 등 파견 재외선거관  
한인 언론사 광고에 경고 조치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  
약)의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는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법 위  
반 조사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  
는 행정절차라고 명시한 만큼, 해외 선  
거법 단속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

적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  
원 재외선거(3월 27일~4월 1일)를 앞  
두고 미국 등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행  
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8명  
의 '선거범죄 예방·단속' 행위가 사법적  
조사권을 행사함에도 현지 국가인 미  
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외선거관의 선거법 단속 행  
위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 등 미

국에서의 주권침해 시비에 휘말릴 가  
능성마저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와 애틀랜타에 파  
견된 김낙현 재외선거관은 애틀랜타  
중앙일보 등 미국 법인으로 등록된  
한인 신문사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광고게재 관련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  
였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애틀랜타 재  
외선거관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  
위에 따른 경고조치' 서한을 발송했다.

4면 '국제법 위반'으로 계속 김형재 기자



벚꽃 나들이 한창 따사로운 봄 햇살을 사색하는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강풍이 불었지만 24일 워싱턴 DC의 벚꽃 명소로 유명한 타이달 베이신에는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인파가 몰려 벚꽃 놀이를 즐겼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의사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여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북핵 대응, 확장억제 넘어 한·일에 신형 전술핵 협력배치를”

(나토식 듀얼키)

“미국의 ‘확장억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한국과 일본에 신형 전술핵을 협력 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듀얼 키’를 공유(미국과 동맹국 간 발사 권한 공유)하는 해법이 중요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의 아시아 핵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 담당 부차관은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탄도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뿐 아니라 작전상의 공동 협력, 통합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의 아태 국방안보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의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나.  
“지난 3~4년간 북한은 핵개발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 것이고, 참모들도 ‘빨리 만나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하노이 노딜’ 때와는 달리) 이번엔 훨씬 더 신중할 것이고 북한도 그럴 것이다.”

-최근 미라 램-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에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북한은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얻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 단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비생산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인식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북한, 절대 핵무기 포기 안할 것  
중간단계, 위험하고 비생산적  
주한미군 감축은 어려울 것”

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비핵화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문제다.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말이다.”

-북한 핵 능력을 평가한다면.  
“북한은 이미 핵 능력을 보유하고 주장하고 있고, 좋은 싫든 그런 전제하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북한 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말이다.”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지수 캐리건 코디네이터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사전 협의하고, 협상의 매순간에 협의하는 것이다. 한국은 거부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위협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크다.  
“한국과 일본에 신형 전술핵무기를 협력 배치하는 해법이 중요하다. 한국·일본에 중거리 핵전력 수준의 전술핵 미사일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별도로 이른바 ‘동북아시아사령부’를 창설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대북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는 인태사령부, 한국, 일본을 더 깊게 통합해야 한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한 유엔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한국 방어를 위해 지상에 군대를

배치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우려하느냐.

“북한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라는 선의를 보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문제는 측근들이 ‘그건 정말 나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나.  
“대만 유사시 북한이 대담하게 행동할 것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어려울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①미국을 겨냥한 직접 도발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②제7차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개량 실험 또는 위력이 가장 큰 중성자폭탄 실험 ③국지적 도발로 서해 무인도 등의 무력 점령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은 건 ①번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곧 시작되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신속하게 합의될 바란다. 다음 정부에 완성된 문서로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

-책 『핵무기 사냥(Hunting Nukes)』에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저지 과정을 다뤘다.

“박 전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했거나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과 같은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수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한국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놀라운 경제 역량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워싱턴=김형구·강태화 특파원

## 트럼프 2기 아태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할 듯

리처드 롤리스(78) 전 국방부 부차관은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전략 수립과 정책 입안에 관여해 온 산증인이자, 미국 내 최고 북핵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 주재 미국 CIA(중앙정보국) 요원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부차관보와 부차관을 역임했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중시하는 동맹 우파 성향이 강하다.



『핵무기 사냥』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 사회의 반미 움직임에 대응해 ▶용산기지 이전과 전 시작전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및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배경은 달랐지만 원조 트럼프리즘(Trumpism)으로 해석될 만한 정책을 추진, 실행에 옮겼다. 6차 회담 미 측 대표단으로도 활동했다.

롤리스는 지난해 한반도의 핵개발 관련 비화를 담은 저서 『핵무기 사냥』을 출간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서문에서 “정책 입안자, 정치인,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적었다.

### ▶ 1면 ‘테러’에서 이어집니다

생존자 아나스타샤 로디오노바는 로이터통신에 “테러범들은 침묵 속에서 체계적으로 총살했다”면서 “침착하게 한 명 한 명 죽이기만 했다”고 말했다. 패닉에 빠진 수천 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생지옥으로 변했다. 일부 관객은 시신들을 넘어달아났다.

테러범들은 공연장 커튼과 의자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수류탄과 소이탄을 투척했다. 건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 사망자 일부는

화재로 인한 독성 연기를 마셔 숨졌다. 공연장 2개 층이 전소됐고, 지붕 일부가 붕괴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이슬람 국가 호라산(ISIS-K)은 22일 텔레그램 성명에서 “(IS 전투원들이) 공격을 가해 수백 명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 온 ISIS-K는 지난 1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4주기 추모식 폭탄 테러로 80여 명을 숨지게 하는 등 여러 건의 테러를 일으켰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23일 연설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시사했다.

ISIS는 2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통신사 아마크를 통해 범행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이 관객들을 한국에 몰아넣고 총격을

가하기 위해 비상계단에 불을 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ISIS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모스크바에서 테러리스트 공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러시아 당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경고와 관련해 대선 직후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명백한 협박”이라고 받아친 바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과 다른 인간 쓰레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국·영국·프랑스·독일·한국 등은 테러를 규탄하고 위로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한국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백일현·박형수 기자

**워싱턴 날씨 (°F)**

26일(화)	54~43	☀️	29일(금)	61~43	☀️
27일(수)	58~48	☁️	30일(토)	63~44	☁️
28일(목)	53~43	☀️	31일(일)	63~45	☀️

3월 25일(월) 57~3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문&박 1984년 창립**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38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문일룡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협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임현식 변호사**

- 아메리칸대학교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 아메리칸대학교 비즈니스쿨 졸업
- 전 대한민국 경제 5단체 한국무역협회 소속변호사 (한미통상담당)
- 전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교육청 자문위원 (소수계학생문제)
- VA, MD, D.C. 변호사협회 정회원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 “대한민국 국부 위한 사업에 충실”

이승만 기념사업회 총회  
신임 정인량 회장 선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신임 회장에 정인량 목사가 선출됐다.

기념사업회의 정기총회가 열린 지난 23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는 30여명 이사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와 더불어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정 신임회장은 “선배 회장들이 이룩해 온 일을 이어받아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이사들, 특히 여성 이사들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부이자 대표 지성인 이승만 박사는 특유의 담대함으로 당시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끄는 데 큰 이바지를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젊은 세대를 영입·육성해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을 후세대에 계승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기념 사업회의 전직 회장 및 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신임회장에 정인량 목사가(가운데)가 선출됐다.

원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는 이달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정세권 전 회장이 연임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만장일치로 정인량 신임회장을 추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권 전회장은 “기념사업회를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 지도자들의 꾸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77세의 신임 정인량 회장은 1988년 도미해 워싱턴영광장로교회를 설립, 30년 목회후 은퇴했다. 25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기념사업회 회장 직무를 3개월간 수행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재취임하게 된 정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김윤미 기자

#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

워싱턴 교회 협의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며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엘리사·사진, 이하 교협) 주최 부활절연합새벽예배가 오는 31일(일) 페어팩스 스테이션 소재 서울 장로교회(담임목사 한상인)에서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연합 새벽예배에 대해 박 엘리사 회장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권세를 이기

한편 교협은 다음달 1일(월)부터 3일(수)까지 메릴랜드 미들타운 소재 스카이크로프트 센터에서 목회 비전캠프를 갖는다. 선착순 60명으로 한정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윤미 기자

# DC AKUS 안보 강연회 수잔 솔티 등 북한 전문가 초청



‘실질은 북한인들을 해방 시킬 것이다’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워싱턴 DC한미연합회(AKUS 회장 오인환·사진)의 2024년 제 1차 한미 안보 강연회(US-ROK SECURITY CONFERENCE)가 오는 30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

네 명의 연사들로 구성된 이번 강연회는 데이비드 맥스웰(전 UN군 사령부 작전참모)을 비롯해 이정호(탈북인사)씨가 ‘김정은 왜 한미동맹을 위협할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인 가운데 그렉 스카를라토이우(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안보와 인권:북한을 둘러싼 난제들’, 수잔 솔티(자유북한 연합) 대표가

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워싱턴DC AKUS가 지킨다’는 가치를 내걸고 창립했다.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 전역 25개, 한국 15개 챗터가 있다. 워싱턴DC AKUS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한미 안보 강연회 및 미주 한인 관련 입법 활동, 차세대를 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교육, 보수 우파 유관 단체들과 협조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기자

# 영 김 등 연방 하원의원단 금주 방한

외교·국방·통일장관 면담



방문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국 총선 기간임을 감안해 국회 방문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별도의 면담 일정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사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단이 내주 방한한다.

2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 등 하원의원들이 오는 25일 시작되는 주에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방문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북한의 도발 행위 고조에 따른 공조 강화를 비롯해 한미일 정상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단은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부산

한 관계자는 “미 의회의 예산 처리 문제 등으로 여러 번 미뤄졌던 일정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 상황을 감안해 정치인 면담은 이번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매콜 위원장은 국빈 방미를 앞둔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다.

# W&M 대학에 3천만불 익명 기부

윌리엄앤메리 대학이 익명의 독자가로부터 3천만달러를 기부받았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기부자가 학교 동문이자 윌리엄앤메리재단 이사 중의 한명이라고 전했다. 대학 측은 캠퍼스와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사이에 위치한 4층짜리 빌딩 ‘브라운 홀’을 레노베이션해서 ‘로버츠 게이트’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현액할 예정이다. 게이트 전 장관은 1965년 윌리엄앤메리대학을 졸업한 동문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새단장한 건물은 연구시설로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건물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 노예후손들을 가리치던 학교 건물로, 레노베이션 후에는 3곳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옥재 기자

# 기존주택 판매 9.5% 감쪽 증가

21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에 따르면 2월 기존주택 판매(계절 조정치)는 전월 대비 9.5% 급증한 연율 438만 채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3%)와 비교하면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2월 수치는 3.3% 감소했다. 2월 기존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대

비 38만4500달러로, 전년 동월(36만3600달러)보다 5.7% 올랐다. 전년 대비 주택 가격은 8개월 연속 올랐다.

국내 4개 지역 모두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2월 말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재고는 전월 대비 5.9% 증가한 107만 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97만 채였던 것과 비교하면 10.3%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판매 속도로 봤을 때 2.9개월치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3.0개월치, 전년도 같은 달에는 2.6개월치였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스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무료 상담**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 한국내 사법적 행정 절차, 타국에서 강행 '무리수'

▶ 1면 '국제법 위반'에서 이어집니다.

LA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LA중앙일보를 상대로 구두 경고에 나섰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사법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국 법조계와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가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검찰 영사는 주권침해 등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상 자체 수사나 체포 등을 강제하지 못

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파견한 재외선거관은 한국 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만을 근거로 타국에서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애틀랜타에서 재외선거관의 전화 조사를 받은 신문사 직원과 광고 의뢰자는 "선거관이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는 태도를 보였고, '광고비는 얼마 받았느냐, 담당자가 누구냐,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 등 세부 사항을 캐묻고 엄하게 지시했다"며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에도 드러난다.

중앙선관위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중앙선관위가 애틀랜타 한인에게 보낸 선거법 위반 관련 경고서한. [독자 제공]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절차상에서 피조사자 및 사권관계인의 인

권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범죄 조사권에는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사권의 행정절차는 개인의(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질문·조사권은 선거관이 범죄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추궁하는 권한이라고 한다. 자료제출요구권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들은 선거범죄 조사권을 근거로 재외국민과 시민권자, 미국 법인 등록 한인 언론사를 상대로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적 행정절차를 법적 권한이 없는 타국에서 강행하는 셈이다.

이는 연방 국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 해석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 제한 등 주권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의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한국의 한 법무법인은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주재국의 동의가 없이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제 기자

##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거세지는 반대 여론

뉴욕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 주민과 정치인 뿐 아니라, 뉴욕시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교통혼잡료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성향인 이들은 교통혼잡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맨해튼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리처드 퀸즈보



로장은 "퀸즈에 거주하는 경찰·소방관·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교통혼잡료를 면제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의회 내 민주당 의원 일부는 로어맨해튼이나 스탠포드 등에 거주하는 뉴욕시민들에게는 교통혼잡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평생 뉴욕시로 살아온 우피 골드버그는 최근 ABC방송 토크쇼 '더 뷰'(The View)에서 교통혼잡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제 친구들은 물가 부담에 뉴욕을 이미 떠났다"며 "주정부가 시민과의 대화 없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뉴욕관광청, 브로드웨이협회 등 경제계에서도 맨해튼 경제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연이은 우려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입장은 확고하다.

MTA는 "예외 상황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교통혼잡료 시행 취지가 사라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교통혼잡료 시행 전 관련 소송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과 4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마크 소코리치 포트 리 시장, 뉴욕시 교사노조(UFT)와 스탠포드보로장이 제기한 소송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김은별 기자

## '3월의 광란' 곧자가대 캔자스 꺾고 16강 진출...여준석 2점

곧자가대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디비전1 토너먼트 16강에 진출했다.

곧자가대는 2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델타 센터에서 열린 2024 NCAA 남자농구 디비전1 토너먼트 중 서부지구 2회전 캔자스대와 경기에서 89-68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곧자가대는 퍼듀대-유타주립대 경기 승자와 3회전을 치른다.

곧자가대에서 뛰는 국가대표 출신 포워드 여준석은 이날 경기 종료 40초 전 중거리슛으로 2득점을 올렸다.

여준석은 이를 전 맥니스대와 1회전에서 5분간 출전해 2점,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한국 선수가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NCAA 남자농구 디비전1 토너먼트에서 득점을 올린 것은 2022년 이현



코네티컷대와 경기에서 뛰는 여준석(21번)

중 이후 올해 여준석이 2년 만이다.

데이비드스대에 다닌 이현중은 2022년 1회전에서 11점, 4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했으나 팀은 2회전 진출에 실패했다.

▶ 1면 '로버트 허'에서 이어집니다.

또 그는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그들이 불쾌해 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그 보고서는 법대생이나 일반 대중은 물론, 의회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다"면서 "경험 많은 검사였던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그 보고서의 유일한 독자"라고 설명했다.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법률적 측면만 고려했다는 취지다.

허 특검은 자신에 대해 "당파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히 추구하는 이념이 없으며, 나는 단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많은 부분이 가족의 역사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외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란했다. 마취과 의사였던 아버지,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1970년 대 초 미국으로 이주했다.

허 특검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주한미군이 아니었다면, 내 부모님과 나의 삶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라며 "나와 내 가족은 이 나라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

약 미국 법무장관이 난감한 일을 누군가에게 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나의 윤리적·도덕적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허 특검은 어린 시절 받았던 '한국식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해야 했고, 집안 분위기는 엄숙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 뭔가를 해본 기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동안 드림을 쳤는데, 그것이 사실상 유일한 반항이었다고 설명했다.

1973년생인 허 특검은 미국 로스앤

젤레스의 명문 사립 고교인 허버드-웨스트레이크, 허버드대 학부를 거쳐 스탠포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예과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지만, 유기화학 수업에서 제적됐다. 그는 영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1897-1962)의 작품 '압살롬아, 압살롬아'를 윤리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공화당원인 허 특검은 2007~14년 메릴랜드주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법무부에서 일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을 지냈다. 검사장의

로 근무하던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마약, 사기 등 강력범죄를 주로 수사했다.

이 기간 국가안보국(NSA) 하청 계약자 해럴드 마틴의 기밀정보 절취 사건을 기소하며 기밀 유출 문제를 다룬 적도 있다.

2021년 연방지검장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유명 로펌인 김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허 특검 지명을 발표하면서 "검사로서 탁월한 경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박형수 기자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MD맥도날드 가격이 VA보다 1~3달러 비싼 이유? MD 주민들 물가고통, VA 보다 훨씬 커

최근 메릴랜드 인구가 1년새 1만명 이상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 또한 주변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모든 면에서 메릴랜드가 버지니아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물가 폭등에 따른 고통마저 더 커지는 것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락빌에 거주하는 마이클 윈들러스키씨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왜 같은 맥도날드 메뉴 세트가 버지니아에 비해 1-3달러 더 비싼지 누구도 해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레스톤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치킨 너겟 6조각짜리 해피밀 세트는 5.59달러



이지만,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실버 스프링 매장은 6.79달러를 받는다. 빅맥 밀드 버지니아 레스톤은 10.19달러,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은 11.08달러다. 이밖에도 맥도날드의 주요 식사 메뉴가 모두 1-3달러 차이를 보였다.

메릴랜드는 예전에도 버지니아보다 물가가 다소 비쌌으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우처 대학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메릴랜드 유권자의 40%가 올해 대신의 최대 이슈로 경제와 물가 문제를 거론했다. 이같은 답변비율은 헬스케어(11%), 인종 및 사회정의 이슈(11%), 세금문제(9%), 교육(8%) 등을 훨씬 앞지른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50%가 경제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여기고 있어 민주당보다 훨씬 많았다.

상당수의 메릴랜드 주민은 버지니아보다 높은 최저임금과 더 강한 코로나 펜데믹 규제, 에너지 및 환경 규제 등의 영향으로 버지니아 주민보다 훨씬 큰 경제적 고통이 뒤따르고 불평을 토로했다.

김윤미 기자



## VA 곳곳에 산불, 비상사태 선포 쉘난도우 등 1600에이커 소실

버지니아에서 최근 100건 이상의 크고작은 산불이 발생해 1600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고 수백여채의 주택이 전소돼 주민들이 대피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비상사태 발령지역은 페이지, 쉘난도우, 라파에녹, 루이지, 오거스타카운티 등이다.

페이지 카운티의 루레이 동굴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로 5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쉘난도우 국립공원으로 번져 450에이커 이상을 태웠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로 1번 국도를

따라 퀴티코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100에이커 이상이 불탔다. 당국에서는 최근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발화와 확산이 더욱 쉬운 환경 탓에 산불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 기후 특성상 3-4월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대체로 4월 중순 경 건조경보를 발령하고 야외활동시 취사 행위나 캠프 파이어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지만, 올해에는 그 시기를 앞당기고 각급 공원 내에서 야외 발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 허위 납치신고한 청소년 2명 체포

VA 페어팩스 카운티 유튜브 촬영 목적

유튜브 촬영을 위해 허위 납치신고를 했던 10대 청소년 2명이 입건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3월5일 저먼타운 로드 선상의 철물점 체인 로우 앞 주차장에서 운모에 덕트 테이프가 감긴 사람이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었으며 납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바깥에서 있다는 신고

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했으나 청소년들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 벌인 허위신고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에서는 용의자 콜린 해리스(19세,VA 스타링)과 아하두 게타(19세, 폴스처치)를 물질서 및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했다. 촬영을 했던 제3의 인물은 기소를 면했다.

경찰당국은 경찰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죄라

고 규정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는 작년 911 등을 대상으로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새 법률에 의하면 911과 경찰 등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급 경범죄로 기소돼 최대 징역 1년형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등이 출동하고 사망 혹은 중경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김옥채 기자

## 볼티모어 BWI 국제선 이용객 사상 최대

레이건-덜레스 공항도 올해 경신 예상

작년 볼티모어 BWI 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실에 따르면 작년 BWI 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40만명으로, 펜데믹 이전의 기록인 2018년 대비 2.6% 증가했다. 무어 주지사는 "BWI 공항은 메릴랜드 지역의 국제관문으로, 커다란 경제 동인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관광 증대 사업을 통해 고용과 사업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BWI 공항은 이달초 중미국가 벨리

즈와 카리브해 국가 버뮤다행 노스톱 왕복 항공편을 취항하고 에어 캐나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아벨로 에어라인, 콘도르, 코카 에어라인, 아이슬란드, 플레이 에어라인 등의 증편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BWI 공항의 작년 국제선 이용객을 포함한 전체 이용객은 2630만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올해 이 기록도 펜데믹 이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지니아의 레이건공항과 덜레스 공항의 작년 총 이용객은 각각 2550만명과 2510만명을 기록했다. 덜레스 공항의 작년 국제선 이용객은 930만명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김옥채 기자

##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동 강요 업체 고발

북VA 프랜차이즈 식당 4곳



연방노동부가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북버지니아 지역 프랜차이즈 식당 4곳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와 애쉬번, 사우스라이딩, 스타링 등에 위치한 저지 마이크스 서브 식당은 연방공정노동표준법(FLSA) 중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과 금지 및 노동시간 준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곳의 식당은 JM 버크 LLC 회사 소유로, 모두 14명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수업이 없는 날에 8시간 이상, 주중 18시간 이상 근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도 노동을 시킨 것도 FLSA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JM 버크 LLC는 모두 10만8161달러 민사합의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업체는 이밖에도 오버타임 법규와 정규 시급을 적절하게 기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Banking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6; VA MC-77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이락초등학교)  
웨일리도래방

40  
300m  
뉴타운홈

미락초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사일 22발 격추

러시아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접경 도시인 벨고로드로 발사된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스푸트니크 통신에 “오후 5시50분경 벨고로드로 RM-70 벵파이어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우리 방공부대가 벨고로드 상공으로 날아온 미사일 22기를 모두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미군 전략 폭격기가 자국 영공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바렌츠해 상공으로 미 공군 전략폭격기 한 쌍이 날아오는 것을 식별하고 우리군의 미그-31가 국경 침범을 막기 위해 출격했다”며 “미그-31이 접근하자 미군 폭격기는 러시아 국경에서 유턴



러시아군 소속 미그-31BM 전투기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임무를 수행한 미그-31은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는 자국 수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지난 22

일 발생한 테러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러시아가 테러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자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테러 사건 직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이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 조직원이 테러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방은 설전에 그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테러 발생 다음 날인 전날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 남부 세바스토폴 항구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서부 도시 르비우에 미사일 수습발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 미국 대선 최악 진흙탕 싸움 양상

“쪽박 도널드(Broke Don)”, “부패한 조(Crooked Joe)”, “부패한 조(Crooked Joe)”

상대에 대한 이 같은 멸칭이 단적으로 말해 주듯, 조 바이든(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된 올해 미국 대선이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쪽박 트럼프는 지하실에 있다”며 트럼프 이름 앞에 ‘파산하다’의 의미의 ‘broke’를 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돈을 모으지 못한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과 음모 이론가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와 자산 불투명 사기 의혹 및 명예훼손 관련 민사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송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터에 트럼프 캠프의 모금 실적이 바이든 캠프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다.

이달 초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대선판이 짜여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를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 것이기도 했다.

“쪽박 도널드”라는 표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사용했던 “부패한 조”에 상응하는 멸칭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한터 바이든의 비위 의혹과



바이든 대통령을 연결하며 작년 4월부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부정직한’, ‘부패한’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crooked’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터 바이든이 부친의 부통령 재임 기간(2009~2017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있자 바이든 대통령을 권력형 바리의 배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까지 진행된 가운데,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조’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미국 유권자 과반이 고령(바이든 81세·트럼프 77세)의 전 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새로운 비전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공방 중심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5일 ‘슈퍼 화요일’(16개 주 동시 경선)을 거치며 양자대결로 판이 짜여진 뒤부터 바이든 대통령 측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날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난타전 양상은 본격 가열되고 있다.

# 미국 “모스크바 테러공격은 극악무도 범죄...규탄”

미국 정부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발생한 총격·방화 테러와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토니 블링컨(사진)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를 규탄하며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한 인명



손실에 슬퍼하는 러시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우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양심적인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깊은 애도

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이슬람국가(IS)를 거론하면서 “IS는 모든 곳에서 물리쳐야 할 공동의 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통보좌관은 모스크바 테러 발생 직후인 전날 브리핑에서 “끔찍한 총격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테러 배후와 관련,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인이 연루돼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 인질 40명-수감자 800명 교환 제안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자국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800명 교환 안을 제시했다고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주요 쟁점에서 새로운 유연한 제안을 하고, 하마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간(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야하야 신와르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타결 가능성은 5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이 파리 회의에서 만든 중재안에는 6주간의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400명을 석방하는 제안이 들어 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 북부 출신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를 허용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지구 건물 앞에서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 [로이터 연합뉴스]

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에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덧붙였고, 성인 남성의 복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요구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 불가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하마스 소탕전을 즉각 재개한다는 입

장을 전달했다고 채널12는 덧붙였다.

하마스는 그동안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 약속을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망상에 가득 찬 제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해왔다.

170일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슬람 금식절 라마단을 맞았다.

특히 하마스가 요구한 이스라엘군 철군과 영구 휴전 조건을 이스라엘이 일축하면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 다만, 라마단 시작 후 하마스가 철군과 영구 휴전 조건을 완화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지난 18일 도하에서 협상이 재개됐다.

이스라엘 협상단을 이끌고 협상에 참여했던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본국 보고를 위해 귀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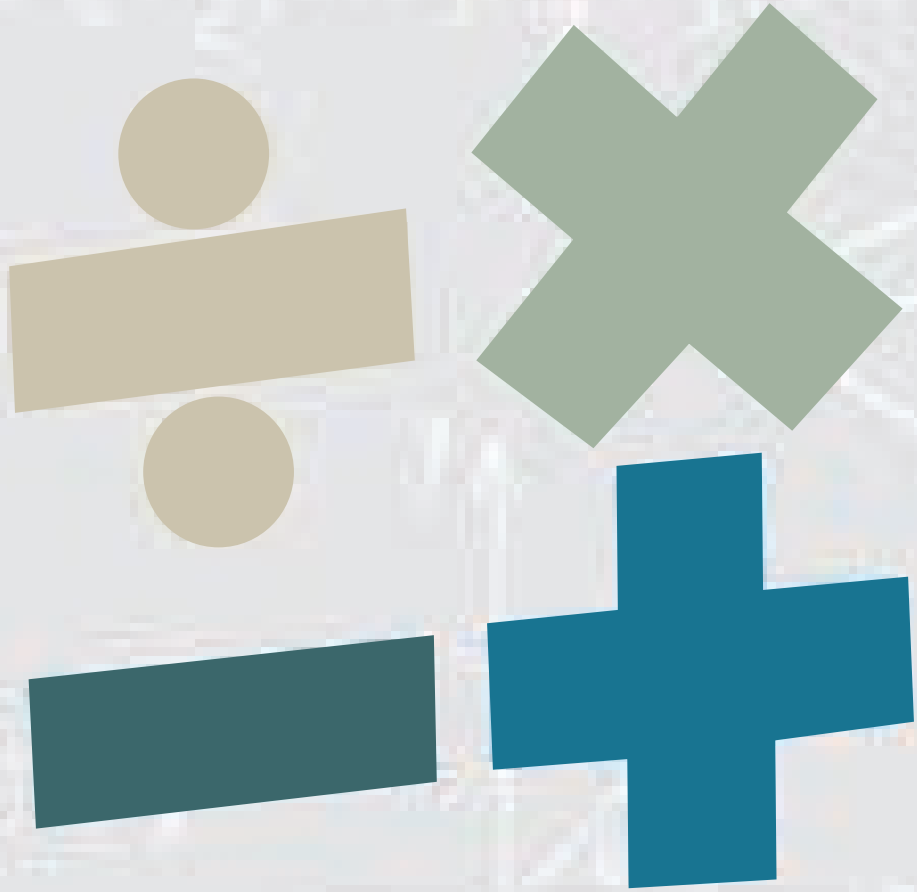
**VA·MD·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와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학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버트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The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수학 Grades 4-11**  
April 6, 2024 / 2PM ET

**물리 Grades 9-12**  
April 6, 2024 / 12:30 ET

**과학 Grades 4-12**  
April 6, 2024 / 3:30 ET

## KSEA NMSC 2024 전국 수학/물리/과학 경시대회

### 버지니아

수학 1등: 연방하원의원상 / 물리 1등: 페어팩스 교육감상 / 과학 1등: 워싱턴 총영사상

### 메릴랜드

수학 1등: 연방상원의원상 / 물리 1등: 메릴랜드 국무장관상 / 과학 1등: 메릴랜드 행정법원장상

장소 및 시간	4월 6일 메릴랜드 (Applied Physics Lab, Laurel, MD) / 4월 6일 버지니아 (KSEA Headquarter, Vienna, VA) 과목별 시간정보 웹사이트 참조
등록처	온라인: NMSC.KSEA.ORG/DC 및 당일 현장등록
기본정보 및 추가문의	NMSC.KSEA.ORG / NMSC.KSEA.DC@GMAIL.COM
주관	KSEA (Sponsored by 재외동포청 & 한화)
비고	수학과목 응시 시간중 (@ 2 pm) 학부모 대상 세미나 개최 (버지니아: 문일룡 페어팩스 교육위원님, 메릴랜드: 메릴랜드 대학 기계공학과 한봉태 교수님)
수상자 혜택	전국수상자: 상금 및 한화전국경시대회 응시자격 지역수상자: DC 챗터에서 준비한 다양한 상 (메릴랜드 버지니아 각각 분리 채점 및 수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추가사항	KSEA.ORG 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네트워킹의 기회와 많은 행사 및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더 정확한 지역내 행사 정보를 얻으시려면 가입시 챗터 설정에서 Washington Metro Chapter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기간: 2024년 3월 31일**

**<https://nmsc.ksea.org/DC>**

**현장등록: 4월6일**

**Online Contact: [nmsc.ksea.dc@gmail.com](mailto:nmsc.ksea.dc@gmail.com)**

Sponsors:



# 비정상적 불안, 의심 행동, 쉽게 화 내면...

## 무시해서는 안 되는 치매 신호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중 하나가 바로 치매, 알츠하이머다. 다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더 문제다. 다만 초기에 징후를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나다 알츠하이머 협회가 공개한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에 걸렸을 수 있다는 초기 징후를 발견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대화 중 올바른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고력, 기억력 또는 일상 업무 수행 능력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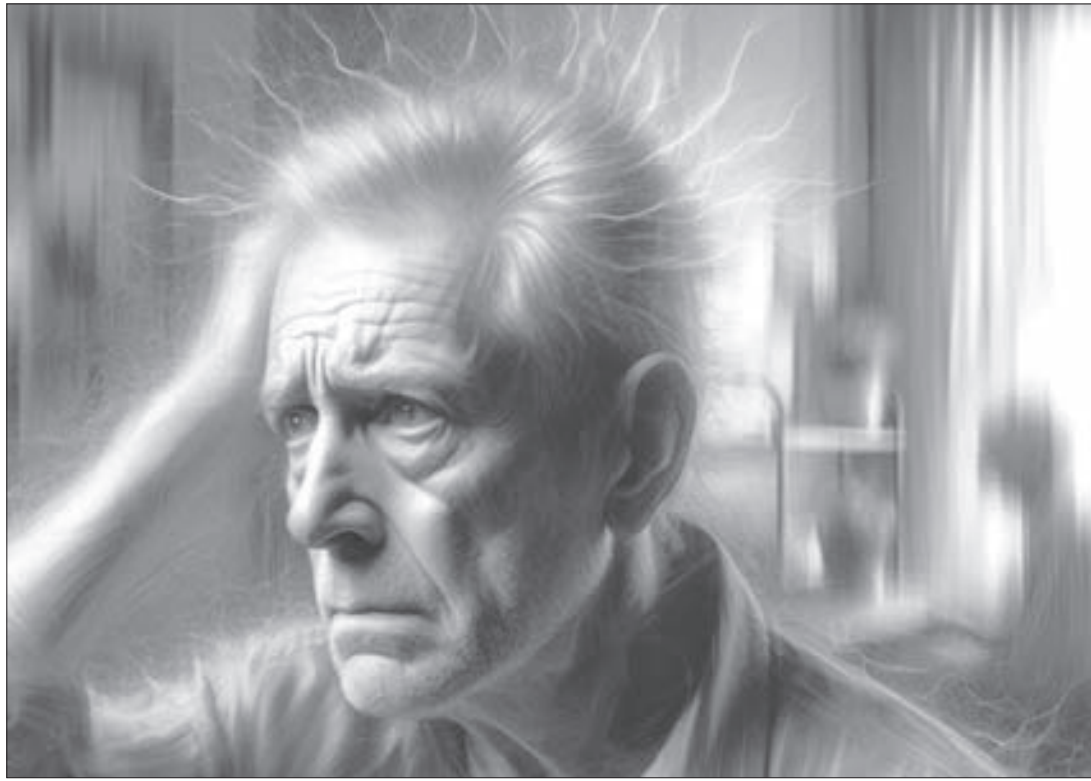
치매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뇌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치매는 집중력, 주의력,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시각적 지각 능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치매는 또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성격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협회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7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의 60~80%를 차지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7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감염부터 비타민 결핍까지 치료 가능한 여러 질환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매의 10가지 경고 신호

- 다음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증상이다.
- 1. 일상적인 작업의 어려움  
치매 환자는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월별 청구서를 확인하거나 요리하는 동안 레시피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알츠하이머 협회는 지적한다. 또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2. 반복 질문과 이야기 반복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질문을 반복해서 하거나 최근 사건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경증 또는 중등도 알츠하이머의 일반적인 징후다.
- 3. 의사소통 문제  
배우자가 대화에 참여하거나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미국인 치매 환자의 60~70%가 알츠하이머인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ING.COM 코파일럿 생성]

## 670만명 알츠하이머병 앓아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혼란 몸단장·정절 소홀하면 의심

단어나 사물의 이름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 관찰해 봐야 한다.

- 4. 길 잃기  
치매 환자는 시각 및 공간 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이는 운전 중 길을 잃는 것과 같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 5. 성격 변화  
배우자가 비정상적으로 불안, 혼란, 두려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고 우울해 보인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 6.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거나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위험 신호다. 펜실베이니아 펜 메모리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제이슨 칼라워시 박사는 시간에 대한 방향 감각 상실도 걱정스러운 징후 중 하나라고 말한다.
- 7. 물건을 잘못 놓는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물건을 비정상적인 장소에 놓을 수 있으며, 잘못 놓인 물건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8. 판단력 흐려지는 문제 행동  
가족 구성원이 돈을 다룰 때 점점 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몸단장과 정절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9. 흥미 상실 또는 무관심  
때때로 특별히 사회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 친구, 직장 및 사교 행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일상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치매의 경고 신호이다. 2023년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무관심은 치매만큼 심각하지 않은 기억력 감퇴나 사고력 장애 증상인 경도인지 장애(MCI)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 10. 오래된 기억을 잊어버림  
점점 더 지속되는 기억 상실은 종종 치매의 첫 징후 중 하나다.

### ◆치매의 다양한 유형

다음과 같은 질환은 치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등 두 가지 이상의 치매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가 있을 수도 있다.

-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엉킨 섬유가 생기고 신경 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손상은 처음에는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서 나타나고 점차 확산된다.
- ▶혈관성 치매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유형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억력보다 집중력, 조직력, 문제 해결력, 사고 속도에 더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루이체 치매, 루이체라고 하는 뇌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침착은 뇌 화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 기분, 운동, 사고에 문제를 일으킨다.

### ▶전두측두엽 장애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퇴행성 손상은 65세 이하에서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증상으로는 무관심, 의사소통, 걷기 또는 작업의 어려움, 감정 변화, 충동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있다.

### ◆도움말을 찾을 수 있는 곳

배우자에게 문제가 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주치의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확실한 진단을 받으려면 신경과 전문의, 노인병 전문의 또는 노인 정신과 전문의와 같은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곳이나 전문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국립 노화 연구소는 가까운 의과대학의 신경과에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일부 병원에는 치매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클리닉도 있다.

흡연이나 고혈압과 같은 개선 가능한 위험 요인이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병력과 습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가족력도 마찬가지다.

### ◆치매는 어떻게 진단하나.

의사가 치매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지 및 신경심리 검사는 언어 및 수학 능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및 기타 유형의 정신 기능을 평가한다.
- ▶혈액 검사는 치매 진단에 있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검사로, 현재로서는 임상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p-tau217의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 ▶MRI 또는 PET 영상과 같은 뇌 스캔은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검사를 통해 뇌졸중, 종양 및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 ▶정신과적 평가를 통해 정신 건강 상태가 증상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60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유전자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초기 발병 형태의 알츠하이머는 개인의 유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검사를 받기 전에 유전 상담사와 상담하라. 장병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백성호 공인회계사**

#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MD, DC, VA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잘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 1년 안돼 그만둔 젊공 3020명... “기억 남는 건 민원인 욕뿐”

##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충북의 한 군청에서 9급 공무원이었던 A씨(25)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증을 반납했다. 2년6개월 준비 끝에 얻은 직장이지만, “이 길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2년4개월의 공무원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대부분은 민원인의 욕설이었다. 2021년 첫 근무지인 민원팀 근무 때부터 “쓸모없는 애를 왜 여기에 갖다놨느냐”는 말은 예사로 들었다. 지난해 초 과를 바꾼 뒤에도 상황은 그대로였다. 첫 달엔 97시간, 다음 달엔 70시간 초과 근무. 월급은 초과 수당을 포함해 250만원(수당 제외 시 185만원). 그는 “일하다가 과호흡이 오고 일상생활이 안 됐다. 매일 울면서 출퇴근했다. 가드레일에 이대로 박고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회고했다.

A씨는 퇴직 후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기까지의 과정을 유튜브에 기록했다.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공무원의 현실을 폭로했다. 현재 훗카이도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주변에서 ‘아깝지 않냐’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공무원을 그만두면 불행해진다는 ‘공슬라이팅(공무원+가슬라이팅)’을 겪는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 유튜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공무원퇴사 #의원면직 브이로그(일상 공유 동영상)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22년 국가직으로 입직해 8개월 만에 그만둔 한 유튜버는 “각 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고, 인수인계 없이 업무에 바로 던져졌다”며 “또 과한 의전을 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젊공”(젊은 공무원)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속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670명에서 2023년 1만 3566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용되자마자 그만둔 1년 내 퇴직자는



3020명에 달했다.

중앙일보가 최근 5년 사이 퇴직한 젊은 공무원(연속연수 5년 이하) 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이유를 조사했다. ①낮은 보수(21명) ②조직 문화(20명) ③악성 민원 등 과도한 업무(15명) 순으로 퇴직 사유를 밝혔다(중복 응답 포함). 이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평균 17개월을 썼고 합격 이후 평균 30개월을 일했다. 첫 월급과 퇴직 때 급여 차이는 평균 28만원이었다.

한 교육청에서 9급으로 근무했던 B씨(27)는 “(현재 급여로는) 나중에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공부시키지 못할 것 같아 사기업으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9급 1호봉 월 기본급은 세전 187만7000원이다. 여기에 정근

수당(기본급 5%씩 연 2회) 등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급, 명절 휴가비 등을 반영하면 월평균 급여는 250만원 내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기업 대졸 정규직 신입 초임 연봉은 세전 5084만원이었다. 최근 4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공무원 초봉과 격차는 더 커진다.

인상률은 9급 1호봉 기준 최근 5년간 14.3%에 그쳤다. 김정연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는 군 병사 인상률(병장 기준 131%)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기본급 기준으로) 내년엔 군 병사 월급보다 낮아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도청 9급 공무원 서모(28)씨도 “의식주가 공짜인 병장이 165만원(내일준비지원금 포함)을 받는데 190만원(기본급 기준) 정도 버니 현타(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가 온다”고

말했다. 젊공 퇴직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30명의 퇴직 이후 행적을 추적해 보니, 급수별로 특징이 나타났다.

5·7급의 경우 미취업자 7명 중 6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준비 중이었다. 경제부처를 떠나 로스쿨에 진학한 C씨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법학직성시험(LEET) 난이도는 비슷한데, 최종 합격 뒤 버는 월급 차이는 변호사 기준으로 6배는 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9급의 경우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5명)가 가장 많았다.

새 직장을 찾은 이들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이 가장 많았고(8명), 이어 자영업(4명), 공기업·공공기관(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남모(26)씨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성과 위주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공직에 비해 발전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국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 것도 젊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 배경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만 13~34세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을 조사한 결과 2009년엔 1위 국가기관(28.6%), 2위 공기업(17.6%), 3위 대기업(17.1%) 순이었지만 지난해엔 1위 대기업(27.4%), 2위 공기업(18.2%), 3위 국가기관(16.2%) 순으로 뒤집혔다.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5급 공채(옛 행정·외무고시) 경쟁률 역시 35.1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500대 기업을 조사한 대졸 채용 경쟁률(81대 1)의 절반 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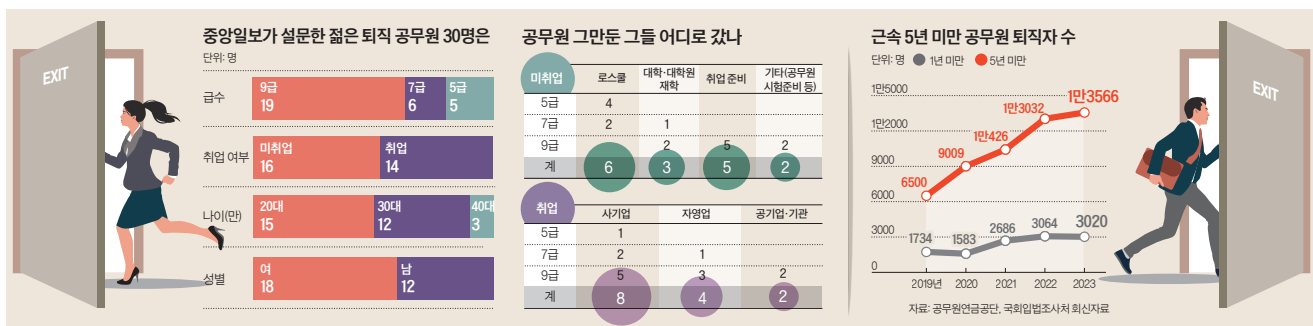
최병윤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경쟁률이 급감한 건 낮은 임금, 위계적인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직업적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שמ니·이보람·장서운·박종서·이아미 기자

지방의 시청 8급 공무원 A씨(34)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112에 신고를 했다. 대상은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이었다. 유일한 보호자인 의붓형이 사망하면서 노숙을 시작했다는 사연에 A씨와 동료들은 그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주고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도왔다. 하지만 이후 그는 하루가 멀다고 사무실에 들이닥쳐 라면·즉석밥 등 물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화를 낼 수도 없었다”며 “악성 민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아서 공무원을 계속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젊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민 업무 스트레스다. 연차가 낮을수록 민원 업무부터 맡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직을 이탈하는 공무원이

## “우리가 공노비냐” MZ 공무원들, 폭언·인신공격에 더 민감



는 추세다. 중앙일보가 설문한 퇴직 공무원 30명 중 15명(중복응답)도 악성 민원 등 과도한 업무를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폭언·협박 등에서

달리는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정서적 손상, 감정 부조화를 초래하는 ‘위협’ 수준이었다.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 등 업무방해’(31.7%)가 가장 많았고, 폭언·협박(29.3%), 보복성 제보·신고(20.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윤모씨는 “업무는 사무직이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서비스직, 야근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이라며 “공무원은 단점을 다 합쳐놓은 직업 같다”고 말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름과 담당 부처,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 사례도 늘었다. 지난 5일 사망한 김포시 9급 공무원(39)도 생전 동료

보수공사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단 민원 종용, 인신공격 등이 계속되자 괴로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청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이모씨는 “요즘 세상에 어떤 직업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지 모르겠다”며 “공(公)노비가 되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최병윤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MZ세대 공직자들의 공공봉사동기’ 보고서에서 “젊은 층은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설명,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권리 의식이 뚜렷하다”고 짚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MZ세대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게 특징”이라며 “공무원이 되기 힘들게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건 그만큼 직업 환경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사상 수상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정승욱**  
연방세무사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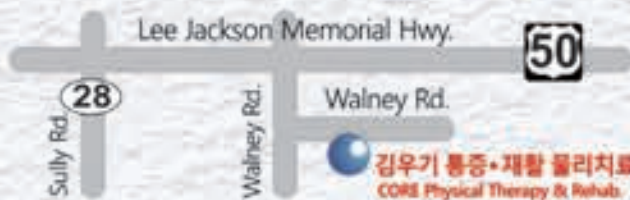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면허정지 유연 처리” 대통령 유화 제스처

“당과 협의를”... 의사와 대화 지시도  
한동훈·의대교수협 만난 뒤 발언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문제와 관련해 “당(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공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오후 4시부터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1시간쯤 지난 오후 6시에 나왔다. 전의교협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간담회였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추가 소통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은 “지켜봐 달라. 제가 하는 것이 건설적



인 대화를 도와드리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의 등장 전까지 의료계와 정부는 정면충돌로 치달아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19개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기로 결의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를 26일부터 정지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한 위원장이 중재자를 자임하자 대통령실도 수용한 모양새다. 전날 한 위원장 측은 의대 교수와의 간담회 추진 사실을 대통령실에 전하며 당정은 소통 채널을 가동해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 요청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 ‘강경론’을 접은 것”이라며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문제 해결 협의의 주제로 당을 특정했기 때문에 당과 정부 간 논의가 우선”이라며 “일단 강경 모드가 대화와 타협 모드로 전환된 셈”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맨 왼쪽) 등 참석자들이 24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제5차 비대위 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령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튿날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총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당 지도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 양쪽을 설득해야 한다”(윤상현 의원 등)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타협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여론 흐름에 당이 반응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성인 1002명에게 묻은 결과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규모, 시기를 조정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보류할 가능성도 생겼다.

의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전의교협 내에서 사직서 제출 여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의교협이 사직서 제출 보류 등의 유연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를 연 전의교협은 “(간담회 결과를) 25일 오후 4시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는 다른 단체인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도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풀어서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정(醫政) 충돌이 완전히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등 의료대란의 계기가 된 본질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정원 확대 의지가 강한 만큼 최종 불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수가와 의료인 소송, 지역·필수의료 문제 등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 정원 자체를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추가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일훈·이창훈·남수현 기자

# “KAIST보다 의대” ... 이공계특화대 4곳, 4년간 1200명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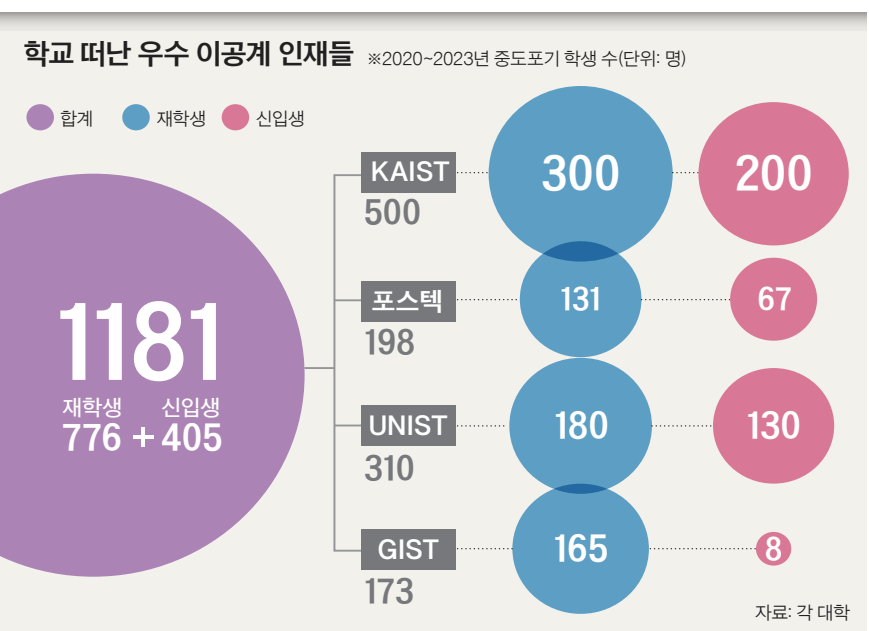
(KAIST·포스텍·UNIST·GIST)

이공계 집어삼키는 ‘의대 블랙홀’  
학교 떠난 10명 중 3명이 신입생  
의대 증원으로 더 빠져나갈 우려

김태진(가명·22)씨는 지난해 23학번 신입생으로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입학했다. 그의 원래 꿈은 물리학자였다. 영재들만 모인다는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에 진학할 때만 해도 의사는 생각해보진 않았다.

하지만 진학 후 상황이 달라졌다. 김씨는 “친구들이 수업 대신 학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능 준비를 하고, 선배들조차 ‘늦지 않았다’며 의대 진학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답답하고 조급해져서 같이 의대를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의대 블랙홀’이 최우수 이공계 인재들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25일 중



앙일보가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간 4개 이공계특성화대학(KAIST·포스텍·UNIST·GIST)을 떠난 학생 수가

1181명에 달했다. 특히 KAIST에서만 5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이는 지난해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4912명의 10% 수준

이다. 같은 기간 포스텍·UNIST·GIST에서도 각각 198명, 310명, 173명이 학교를 떠났다. 이들 중 405명은 신입생이었다. 중도 포기 신입생 수는 2020년 83명에서 2023년 125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이공계 대학으로 갈 이유가 없는 만큼, 중도 포기 학생 대다수는 의대로 진학하거나 의대 준비를 위해 그만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특성화대학이 의대로 가는 ‘정거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학고·영재학교는 졸업생이 의·약학 계열 진학 시 장학금·교육비 전액(약 1500만원)을 환수한다. 이 때문에 일단 이공계특성화대학에 진학해 제재를 피한 뒤,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장형조 강남N플러스학원 컨설턴트는 “이미 과학고 다닐

때부터 ‘의대를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공계특성화대학을 간 뒤 의대 준비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난다면 이런 인재 유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3월 11일 기준 GIST 학생 28명이 자퇴했다. 포스텍에서도 24학번 신입생 2명 등 학생 4명이 중도 포기했다.

KAIST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이공계특성화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억원에 달한다”며 “학생 한 명이 그만두면, 그 학생 때문에 선발하지 못한 다른 인재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합해, 한 해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희삼 GIST 기획처장은 “이럴 때야말로 의사 외의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이공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후연·서지원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문기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99,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독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독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 한동훈 유세 '반명' 만들린다... 여권 우려 커진 원톱 선대위

(반이재명)

안철수·원희룡 등 자신 지역구 묶여 한, 혼자 전국 돌며 유세 한계 드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22일 오전 충남 보령중앙시장을 방문해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장엔 총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겸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습만 보였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과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원희룡(인천 계양을)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나머지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각자 지역구 선거 유세 일정으로 불참했다. 전날에도 3명은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했다.

반면에 이날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3명은 각자 지역을 나눠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는 격전지 서울로 향했다. 오전 잠실을 시작으로 오후에 영등포까지 9개 유세 일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해찬 위원장은 충북에서, 김부겸 위

원장은 경남에서 각각 지역을 훑었다. 일종의 '스리톱 선대위'를 꾸려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린 것이다.

4·10 총선 레이스가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여권 내에선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원톱 선대위'의 한계를 지적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적이나 질적으로나 한 위원장 단일 체제로 전국 지원 유세를 감당하기에는 벽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위기론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나경원·안철수·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을 세웠지만 세 사람 모두 자기 선거가 박빙으로 흐르

면서 다른 후보를 도와줄 여유가 사라진 것도 그 같은 우려를 키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는 위협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일찍부터 있었지만, 선대위 구성 때 반영되지 않았다"며 "스리톱이 나서는 민주당과 비교하면 원톱 선대위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역을 도는 한 위원장의 모습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총선을 뛰는 게 아니라 본인 대선을 뛰는 느낌"(여권 관계자)이란 반응이 나오면서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용인 지역 후보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거나 거의 눈은 듯한 자세로 앉아 셀카를 찍곤 했다. 이런 영상이 담긴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본인이 진심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공

식 취임한 이후 석달 동안 정책이나 비전보다 '반(反)이재명'과 '충북(從北)세력을 막겠다'는 메시지만 반복하는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했다 노인 비하 논란으로 낙마한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2일 유튜브에서 "운동권 청산 다음에 민생,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이런 얘기가 힘 있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당의 체질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위원장은 고물가 등 민생 문제 대응이 부족하다는 언론 지적이 이어진 뒤에 관련 메시지와 행보를 늘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일보가 한 위원장이 본격 공약 발표를 시작한 지난 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공개 일정 중에 물가를 언급한 횟수를 집계한 결과 3번에 불과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문제를 9차례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야선 선대위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허진자**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 때까지 잠정중단

22곳 개최, 정책개선과제 359건 야당선 "최악 관련선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현장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그동안 22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가 열린 22곳을 오간 거리는 총 4970km. 서울과 부산을 약 여섯 번 왕복하는 거리다.

민생토론회에는 일반 시민이 1671명

참석했고, 17차(430명)에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다.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

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다.

민생토론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는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 부처 발표 정책 과제 191건)에 달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토론회 발언자는 총 2222명으로 최연소는 13세, 최고령은 88세다.

민생토론회는 애초 구상했던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기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개발 약속을 쏟아내면서 정치적 논란도 계속됐

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 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 25일), 그린벨트 해제(2월 21일) 등이 토론회에서 강조된 대표적 지역 숙원 사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최악의 '관권선거'"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일훈 기자**

## 공무원이 만든 '서울라면' 세계로 간다

도쿄 바나나빵처럼 도시 홍보 상품 29만개 판매... 5월부터 미국 등 수출

서울시 공무원이 만든 라면이 수출된다. 서울시는 24일 "5월부터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서울라면이 수출된다"며 "시장 반응이 좋은 만큼 국물라면과 짜장라면 각 40만개씩 추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서울라면은 국물과 짜장 두 종류다. 일본의 '도쿄 바나나빵'이나 하와이의 '호놀룰루 쿠키'처럼 도시를 상징하는 굿즈(Goods·기획 상품)로 라면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브랜드 라면을 만든 건 서울라면이 처음이다.

풀무원과 함께 만든 서울라면은 누적 29만개가 팔릴 만큼 반응도 좋다. 출시 초 서울 중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 스토어에서

만 팔리던 것이 현재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쿠팡 등으로 판로를 넓혔다.

라면 개발의 주역은 서울시 김현정(43) 브랜드 기획팀장과 시 곳곳에서 모은 팀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의 새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소울'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이 만든 굿즈는 볼펜과 텀블러, 자석류 등 75종에 이른다. 김 팀장은 지난 21일 중앙일보와 만나 "K-문화와 밀접하면서 내·외국인이 확실히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며 서울라면을 개발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메인 굿즈로 라면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후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생산을 맡아줄 제조사가 나서지 않자 그는 라면 회사를 돌며 일일이 제품 취지를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PT)을 했다. 그는 "공무원이 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시를 홍보하는 PT를 했다"고 웃었



서울시 대표 굿즈로 서울라면을 개발한 김현정 서울시 브랜드 기획팀장. [사진 서울시]

다. 끝없는 구애 끝에 풀무원과 손을 잡았다.

제품 개발은 또 다른 난제였다. 서울을 대표하는 만큼 맛과 건강, 개성 등을 고루 잡아야 했다. 건강을 위해 칼로리를 낮추는 것은 기본. 실제 서울라면은 360kcal로 기존 제품보다 10~15%가량 열량이 낮다. 풀무원 라면의 맛을 기본으로 원하는

맛을 더하고 빼는 작업을 두 달여간 이어갔다. 이 기간 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청 본관 2층은 라면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왜 맨날 라면냄새가 나는 거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개발 중인 라면을 맛본 오세훈 서울시장도 "짜장라면이 뻥뻥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팀장은 "짜장라면의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파기름을 빼다 보니 면이 뻥뻥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어서 춘장의 비율을 높여 점성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라면을 개발한 다음엔 포장을 놓고 고민을 했다. 서울라면의 글씨체와 포장지 색, 풀무원과 서울시 로고 사이즈 등을 놓고 협의가 이어졌다.

양측 모두 자신의 로고가 더 잘 보이길 원했다. 결국 국물라면 포장은 올헤의 서울색인 스카이크랄(Sky coral)을 활용했다. 한강의 핑크빛 노을에서 착안한 색이다.

서울라면을 통해 얻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져간다. 대신 판매수익의 일부는 사회공헌 사업에 쓰인다. **이수기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p><b>스프링 필드 타운홈</b></p> <p><b>PENDING</b></p> <p><b>\$670,000</b></p> <p>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p>	<p><b>페어팩스 싱글홈</b></p> <p><b>\$785,000</b></p> <p>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p>	<p><b>페어팩스 타운홈</b></p> <p><b>UNDER CONTRACT</b></p> <p><b>\$800,000</b></p> <p>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p>	<p><b>리스버그 싱글홈</b></p> <p><b>COMING SOON</b></p> <p><b>\$800,000</b></p> <p>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p>	<p><b>페어팩스 타운홈</b></p> <p><b>COMING SOON</b></p> <p><b>\$800,000</b></p> <p>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p>
--	--	--	--	--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p><b>시민권 / 영주권</b></p> <p>-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p>	<p><b>비 이민비자</b></p> <p>-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 및 신분 변경</p>
---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행)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성범죄 변호 이어 갱투자의혹... 민변 출신 야당 후보 또 논란

(조수진)

(이영선)

이영선, 부동산 38억인데 빚 37.7억 민주당,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

위성정당 비판해놓고 비례 직행 이주희 전 민변 사무차장도 논란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각종 논란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23일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이 변호사가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갱 투기’를 한 의혹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세종갑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38억287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역 아파트 1채는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고양 일산서구(1채), 인천 서구(2채) 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다.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수원·구리에 4채, 대구 달서구와 대전 유성구에 1채씩이었다. 이 변호사 부부의 채무 역시 대출 6건, 임차보증금과 월세보증금 10건 등 37억6893만원에 달했다. 야권 관계자는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증금을 다시 부동산에 채투자하는 전형적인 갱 투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민변 소속으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당과 국민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무공천하고 제명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세종시의 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이가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느냐”고 화를 냈다.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됐다가 22일 자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도 민변 소속이다. 그는 자신을 민변 출신 인권변호사로 소개했지만 정작 변호 방식은 인권과 동떨어져 논란을 자초했

다. 지난해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장을 변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재판에서 그는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걸릴 수 있다”며 여아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세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사건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것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러 민변 후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서대문갑의 김동아 후보는 당초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당 전략공관위 결정으로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된 후 11일 공천이 확정됐다. 당 내에선 “친명황제에 이은 대장동 대박”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김 후보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

정실장의 대장동 의혹 변호를 맡았다. 그는 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은 이주희 변호사는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이었다. 민변 임원인 이 변호사가 사임 직후 민주연합으로 직행하자 야권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변은 그간 양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이라고 비판해왔다. 야권 관계자는 “이미지에 흠집이 난 민변이 최근 출신 후보의 자질 시비까지 더해져 시민단체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손국희 기자, 세종=신진호 기자

## 이재명 “1인당 25만원” 또 전국민 지원금 꺼냈다

윤 대통령 대해 “차라리 없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보름여 앞둔 24일 4년 전 내놔던 ‘전 국민 지원금’을 다시 제기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런 뒤 수서역 거리 인사에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왔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영등포 유세 현장에서도 “가구당 100만원씩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

한다”며 “무식한 양반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꺼내는 지원금 공약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내걸었던 것과 판박이다. 민주당은 ‘표(票)폴리콤’이라는 비판에도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사용한 반일 카드도 적극 내세우고 있다. 22일 충남 서산에서 “이번 총선은 신(新)한일전”이라고 했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체제’, 대만에도 ‘체제’ 이러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반일보다 반중정서가 강한데 굳이 이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이 대표는 같은 날 “표현을 과도하게 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이상헌 무소속 의원과의 경선을 거쳐 24일 울산 북 지역구의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유성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 제2 코로나 대비... WHO 감염병 대응훈련, 한국서 첫 개최

(국제유행경보네트워크)

질병청, WHO GOARN 훈련 주최 파견인력에 유행병 대응경험 공유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WHO GOARN 훈련 모습. 채혜선 기자

“방글라데시 폭스 바자르 해변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전염병 학자라면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 한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을 두고 8~9명씩 한 조를 이룬 4개 조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유행경보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 곤) 훈련에 참여한 질병 전문가들이었다. GOARN은 2000년 WHO가 만든 기관 네트워크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이나 코로나19 사태 같은 공중보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전문가를 신속하게 파견하는 조직이다. 정부기관·비정부기구·병원 등 세계 300여개 기관이, 한국에서는 3곳(질병청,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이 GOARN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GOARN 훈련이었다. 4단계 교육 과정에서 기본 단계(Tier 1.5) 훈련으로, 토론 활동 위주로 이뤄졌다. GOARN 역량 강화팀이 질병청·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학조사관·의사·간호사 등 파견 예비인력 33명에게 유행병 대응 경험을 공

유한 다음 서로 의견을 나눴다. 훈련 담당자인 폴 에플러 서호주대의과대학 교수는 “국제 유행 대응에 처음 참여할 땐 뭘 할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 자신감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며 “뭔가 기여하고 싶다면, 확신이 없을 때라도 주저하지 말고 ‘네’라고 말하길(Just say yes!) 권한다”고 격려했다. 다른 WHO 관계자들도 “맞고 틀린 것은 없으니 의견을 나눠보자”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주문하며, 참가자들과 자유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 23년간 1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전문가 3570명이 GOARN 파견을 나

갔다. 한국에서는 아직 파견 사례가 없다. 질병청과 WHO 측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감염병 대응 부문의 글로벌 전문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련 살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기술책임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공중보건 전문가를 두고 있다”며 “국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전문가라면 이번 훈련은 최고의 기회”라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훈련을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감염병 대응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이 국제보건안보의 중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저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mailto: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mailto:jaeshinyoocpa@gmail.com)

2023 Return

A

T X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mailto: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우리말 바꾸기**

**차가 막히나? 길이 막히나?**

남쪽에는 봄꽃 소식이 한창이다. 광양 매화 축제, 구례 산수유 축제가 시작된 데 이어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도 시작됐다.

이렇게 봄꽃 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무엇보다 교통이 정체되고 주차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 행사장 주변은 늘 늘어난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남쪽보다 일찍 나서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처럼 교통이 혼잡할 때 일반적으로 “차가 막힌다” 또는 “길이 밀린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차가 너무 막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길이 밀리는 바람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등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표현다 문제가 있다. “차가 막힌다” “길이 밀린다” 둘 다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길이 막히는 것이므로 “차가 막힌다”가 아니라 “길이 막힌다”고 해야 한다. “길이 밀린다”는 밀리는 것은 길이 아니라 차이므로 “차가 밀린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길이 너무 막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차가 밀리는 바람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

“막힌다”의 주체는 ‘길’, ‘밀린다’의 주체는 ‘차’이므로 서로 어울리는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해 주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흥주 칼럼**

**미국의 북핵 정책이 변하고 있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회가 북한의 즉각적이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에,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받을 경우 북한에도 가치가 비슷한 양보를 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절대다수는 1990년대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과 오늘날 관계가 많이 개선된 러시아와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 여전히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정치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간단계, 즉 핵 동결이나 핵 감축과 같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일종의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타협이 표면적이라도 북한 핵 동결을 최종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로 가는 길의 중간단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지난 3월 11일,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적을 언급했다. 애초 이 목적은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핵 사용 방지를 말했다. 바꾸어 말해서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실상 이루기 매우 어려운 비핵화보다 핵억

제, 핵사용 방지를 실용적인 정치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세사람의 발언이 일주일 이내에 나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 외교계에서 변화가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보다 핵관리는 더 중요한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어떤 형태든 양측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북한이 미국 측과 핵 동결을 위한 회담에 참가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김정은과 협상하는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북 정상회담 대신 “모든 종류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역 및 국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내 핵무기교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바이든 2기나 트럼프 2기의 북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역대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미 정보 당국(DNI)의 11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아침에**

**누가 내 목에 방울을 달았는가**

단한 일이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놓으면 고양이가 오는 걸 알 수 있지”라고 한다. 다른 쥐들은 “참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다. 그러자 늙은 쥐 한 마리가 “그 의견이 좋기는 하지만 누가 그 방울을 달지?”라고 묻는다. 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 꿈꾸니를 뻔다는 설화다.

판본에 따르면 방울을 집주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 고양이 목에 다는 데 성공했고 쥐들은 안녕을 찾았다는 내용도 있다. 문헌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 구전 채록 자료는 찾기 어렵다. 설화 전파에서 문헌이 구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비교문화적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외국에도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다.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에 살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이솝 아이소프스가 지은 우화 모음집을 말한

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Belling the cat)’는 이솝 우화의 페리 인덱스 613에 실려있는데 중세시대에 추가된 이야기로 알려졌다.

우화(寓話)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풍자와 교훈을 담은 이야기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견을 내놓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목에 크고 작은 방울 하나씩 달고 산다. 아름답거나 보기 흉한, 매력적이거나 불품없는, 각자의 방울을 목에 걸고 살아간다. 그 방울은 빛나는 장식이 되기도 하고 발목을 잡는 덫이 되기도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해도 쥐는 온전히 위협을 피해갈 수 없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공이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목에 방울을 달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오늘은 내일에 비하면 이미 늙은 것이지만, 운명처럼 목에 걸린 방울을 벗을 용기가 있다면, 어제의 멍에 벗고 소중한 내일을 지킬 수 있다.

이기희 Q7 Editions 대표·작가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한청수  
한의학·자연치유 박사

## Q 질병을 다스리며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

▶문= 인체의 생리적 진동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2024년 01월 08일자 코리아 데일리 '한국 여성 평균 수명 사상 처음 90.7세, 남성 86.3세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90세까지의 은퇴 자금과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AI와 더불어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배양 기술이 발전했고 동물 복제와 아직은 불법이지만 사

람의 아바타인 인간 복제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각종 성인병과 신종 불치병 등 사람이 치료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 사스, 조류독감, 신종 변형 바이러스 등 장하고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 의학과 과학의 역할은 한층 더 무거워졌고, 특히 한의학의 영역 역시 이러한 무게감은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난치병

, 불치병이 더욱 늘어나는 현대에 맞춤형 치료법은 없는 것일까요? 불치병, 난치병 치료의 맞춤형 대체의학 '과동 의학'이 있습니다. 과동 의학은 근본적인 이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생리적인 진동과 병리적인 진동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리적인 진동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몸이 건강한 반면에, 병리적 진동이 심한 경우 각종 질병에 노출

됩니다. 사람의 인체는 자기 에너지장에 작은 불균형이 발생하면 고혈압, 당뇨, 콜레

스테롤, 알레르기 같은 만성병이 발생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인체 자기 에너지장에 불균형이 아주 심하면 각종 종양과 암 등 난치병이 발생합니다. 과동 의학은 인체의 생리적 진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병리적 진동을 중화하여 질병을 치유하고 인체를 평형상태로 유지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합니다.

혹시 병명을 알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리셨다면 인체의 생리적 진동을 활성화시키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과동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유산 상속법 변호사

## Q 미국 상속인이 궁금해하는 상속 질문

▶문= 한국에서 상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

▶답= 소송에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며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분 재산을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

▶답= 해외 재산 반출을 위해서는 외국 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

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내역 등은 어떻게 확인 하나?

▶답=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에, 의뢰인이 해외에 있을 때도 재산 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외국인 상속 시, 필요한 입증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답=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 발급을 받는다.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

▶문= 외국에서 돌아가신 망인(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망인(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 증명이 필요한 때도 있다. 미국은 망인이 유언하지 않았다면 유산을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 Q 일하다 다친 직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고용주 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친 직원은 상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주요한 생활에 제약이 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넓은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간주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이 다치게 되었을 경우, 그 제약 상태에도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상의 편의를 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직원이 그러한 편의를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직원의 필요성을 묻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편의제공의 예로는, 직원이 병가나 병원에 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거나, 다쳤어도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조정해 주거나, 업무 일정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 (예,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병가 상태일 경우, 이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이 먼저 업무상 편의를 요청하였다면, 회사는 그것이 회사의 규모나 사업상, 재정상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직원의 요청을 가능한 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원이 요구한 방법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

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통해 그 직원의 업무상 편의제공 방식을 조정해 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분의 경우, 직원이 몇 달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의사를 확실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직원과의 소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해 보험 합의를 하였더라도, 보통은 상해 건에 한해서만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상해에 파생되는 이와 같은 2차 소송으로 예상치 않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빌딩 3층

#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Hair **Z**one

##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 Seniors (Up to 65)
- Kids (Under 15)
-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2PM - 5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Hair **Z**one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March 25,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호퍼(엔비디아의 전작 H시리즈)도 환상적이었지만 콘텐츠와 데이터양이 늘면서 우리는 더 큰 그래픽처리 장치(GPU)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아주 큰 GPU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마뱀 무늬의 검정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 기조연설에서 신제품 GPU B100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GPU와 중앙처리장치(CPU)를 연결한 슈퍼컴퓨터를 공개하고, 다양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날 공개한 신작 GPU 칩은 B100과 B200 두 종류다. 2022년 공개된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프로세

**nvidia**  
**글로벌 시, 황의 법칙?**  
**“크기 더블, 성능 30배”**  
**야심작 내놓은 젠슨 황**

서 작동방식)를 대체하는 ‘블랙웰’ 기반으로 설계됐다. B시리즈는 GPU 2개를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는 구조다. 기존 H100(800억개)보다 2.5배 많은 2080억 개 트랜지스터로 구성됐다. B200은 B100에 HBM(고 대역폭메모리)을 강화해 성능을 높였다.  
젠슨 황은 “블랙웰은 모든 산업에서 AI를 구현시키며,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 칩 외에도 황은 B200 두 개와 자사의 그레이스 CPU를 연결한 GB200 슈퍼칩도 소개했다. 회사는 AI 시대 대규모 연산을 위해 이와 같이 GPU와 CPU를 결합한 슈퍼칩을, 이 슈퍼칩을 여러 개 연결한 슈퍼컴퓨터 형태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 8면 ‘엔비디아’로 이어집니다 박해리·이희원 기자

## 세계경제 잘 맞히는 ‘구리박사’... 상승 가리켰다

**글로벌 경기 혼동 신호**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선행지표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이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17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리 선물 최근월물 가격이 1파운드당 4.124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개월여 전인 지난달 9일(3.6815달러)보다 12%가량 오른 수치다.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 1일(4.1680달러)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구릿값은 세계적으로 ‘닥터 코퍼(Dr. Copper, 구리 박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구리 가격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데, 글로벌 경제에 선행적 특징을 보이는 때문이다. 구리가 제조업·건설업 전반에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수요 확대에 따라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건설업 활황 등으로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식이다. 원유나 금과 다르게 지정학적·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점도 경기 선행지표로서의 신뢰도를 높인다.  
최근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가 커져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력 공급망 구축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라이스태드에너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30년까지 1800만km의 전력망을 신설해야 하는데, 구리가 3000만 톤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진 인공지능(AI) 보급이 급격히 확산하는 점도 구리로 된 전력망 수요를 키우는 요소다.  
또한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구리 수요 확대에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공급 부족 현상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우선 세계의 주요 구리 광산이 잇따라 폐쇄하고 있다. 파나마에 선 지난해 12월 자국 최대 구리 광산(코브레)을 폐쇄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엔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아이사)이 안전성 문제 등 탓에 문을 닫기로 했다.  
구리 가격은 내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글로벌 원자재 전략책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를 통해 “2025년 초 구리 가격이 1t당 1만 달러(1파운드당 4.53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구릿값이 2025년에 사상 최고치 1t당 1만5000달러(1파운드당 6.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구릿값은 1996년 말 아시아 외환 위기, 2000년대 중반 IT버블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에 앞서 하락하며 선행지표로 신뢰를 얻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와중이던 2008년 12월엔 폭락했던 구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1년가량 후부터 세계 각국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구리 박사’의 명성을 굳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국내물가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011년 2월엔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는데, 세계 경제는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때문에 그해 말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 “구리 박사는 죽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구릿값 상승도 공급 부족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향후 경기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김민중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아름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당 현영)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INSTEIN & SOHN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n@rowepllc.com  
알릭스 부시 Alexander Buch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abush@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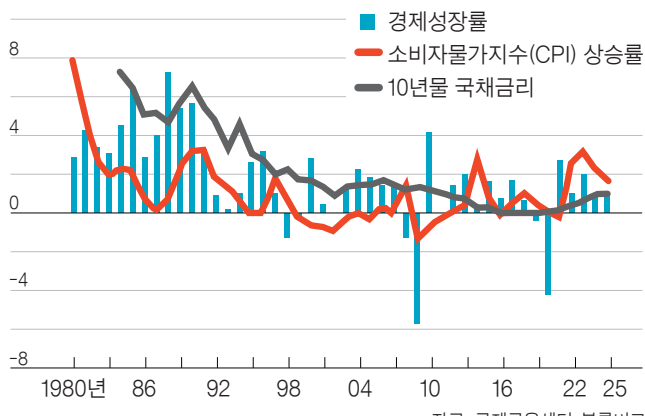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 마이너스 금리 해제해도, 완화 기조는 유지할 듯

##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해 다가가는 일본 경제

단위: %, 2023년 이후는 추정 및 전망치



자료: 국제금융센터·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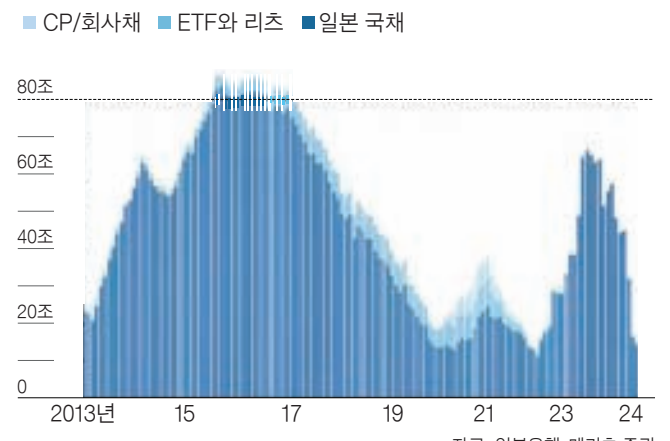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천

시기	내용	정책금리 (%)	본원통화 (엔)	국채 보유 잔액 (엔)
2013년 4월	양적·질적 완화 개시	0	60조~70조	50조
2014년 10월	양적·질적 완화 확대	0	80조	80조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0.1	80조	80조
2016년 9월	수익률곡선 통제(YCC) 도입	-0.1/0~0.1	80조	80조
2022년 12월	일드커브 기능 제고	-0.1/0.5		
2023년 7월	10년물 상단 상향	-0.1/0.5(1.0)		
2023년 10월	10년물 상단 상향	-0.1/1.0		

자료: 일본은행·메리츠 증권

## 일본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증감 추이

단위: 엔, 전년 대비



자료: 일본은행·메리츠 증권

저물가의 족쇄에 갇혀 전례 없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던 일본은행(BOJ)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달 금융정책결정회의(18~19일)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리 인상에 나서면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2016년 1월 도입 이후 8년여 만이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BOJ 총재는 최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물가 목표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수정을 검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저물가가 탈출을 위한 길은 열렸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는 3.1%(전년 대비) 상승했다. 상승 폭으로는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컸다. 인플레이션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CPI 지수(전년 동기대비)도 2.0% 뛰었다. BOJ의 물가 목표치(2.0%)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 대폭 오른 임금, 금융 완화 힘 실어

마지막 퍼즐도 맞춰지고 있다. 일본 대기업이 큰 폭의 임금 인상에 나서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탄력이 붙었다.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맹)가 지난 15일 발표한 1차 노사교섭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5.28%다. 5%대 임금 인상률은 1991년(5.66%) 이후 33년 만이다. 기업은 노조의 요구를 속속 수용하고 있다. 토요타자동차는 1999년 이후 25년 새 가장 큰 폭(직종·계급별 최대 월 2만8440엔)으로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소다. 엔저와 수입 물가 상승이 띄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임금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토요타가 일본 대기업 임금 추세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BOJ가 전례 없는 금융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탈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7월과 10월 장기금리의 상단을 높이는 수익률곡선 제어(YCC) 완화 정책이 그 신호탄이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BOJ가 그동안 풀어난 각종 통화정책 퇴각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책 도입과 시행의 역순으로 ‘YCC 완화→마이너스 금리 종료 및 YCC 폐기→자산 매입 축소’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디플레이션 탈출 위한 ‘구로다 바꾸카포’

일본은 각종 통화정책의 시험장이었다. 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저성장과 저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와 제로금리 등 전통적 통화 정책이 바닥나자, BOJ는 양적 완화(QE)와 마이너스 금리, YCC 등을 통한 장단기 금리 관리 등 비전통적 통화 수단을 도입했다. 2001년 3월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뒤 BOJ는 저물가와의 길고도 지루하며 험난한 전쟁에 돌입했다. BOJ의 통화정책 실험은 아베노믹스와 함께 본격화했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는 유동성을 쏟아부었다. ‘구로다 바꾸카포’

의 등장이다. 구로다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2013년 4월 개시한 양적·질적 통화 완화(QQE) 정책이다. 통화 정책 수단을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를 2년 안에 2배 늘려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다. 이를 위해 국채 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를 연간 60조~80조 엔씩 늘리고, 장기 국채보유 잔액을 연간 50조~80조 엔씩 늘려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REITs)의 대규모 매입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에 간접 투자했다. ETF와 리츠 등 매입 자산의 질적 측면에서 완화한다는 의미로 이를 질적 완화라 칭했다.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제대로 열었지만, 불황과 저물가는 난제였다. 새로운 충격 요법을 고민하던 구로다가 꺼내 든 카드가 마이너스 금리다. 2016년 1월 BOJ는 시중은행이 BOJ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에 부과하는 단기정책금리를 -0.1%로 끌어내렸다.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예금을 맡길수록 손해다 보니 민간은행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헐어서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늘리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BOJ의 통화정책 실험의 마지막은 2016년 9월 도입한 YCC다. 단기금리(-0.1%)를 마이너스로 두면서 장기금리(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도록, 장기금리인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해 상한선을 넘어서면 국채를 사들여 국채 가격을 높여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BOJ가 국채 매입의 큰 손이 돼 국내 유동성을 조절하며 물가 목표치 달성까지 본원통화를 늘려왔다. 오랫동안 꿈꿔 왔던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낸 건

2022년 12월부터다.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폭을 0.5%로 확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10년 국채 금리 상단을 1.0%로 높였고, 지난해 10월에는 10년물 금리 상단 1.0%를 목표치로 바꾸며 지정 가격 국채 매입을 통한 장기금리의 엄격한 통제를 포기했다. BOJ가 사실상 장기금리 인상을 허용한 것으로, 시장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단계로 평가했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YCC 폐기에 나서겠지만, 곧바로 통화긴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우에다 총재는 중의원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에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확연하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소비 회복도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더라도 국채 매입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통화정책 정상화 자체도 만만치 않다. BOJ의 물량 공세로 채권과 주식 시장에 누적된 왜곡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그중 하나가 ETF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월 말 현재 BOJ가 보유한 ETF의 시가총액은 71조 엔으로 장부가보다 34조 엔 높다고 보도했다. 닷케이지수 상승으로 대박을 맞았지만, 선불리 수익 실현에 나설 수는 없다. BOJ가 ETF를 내다 팔면 주가 폭락을 피할 수 없다. BOJ의 유동성에 취해있던 채권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OJ는 현재 매달 7조5000억 엔 규모의 일본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연간 순매수 규모는 17조 엔이다. 시장의 큰손이었던 BOJ의 국채 매입 규모가 줄면 중장기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BOJ, 국채 발행 잔액의 54% 보유  
시장 금리가 오르면 BOJ도 충격을 피할 수 없다. BOJ의 당좌예금 잔고는 518조 엔에 이른다. 금리가 뛰면 이자 지급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BOJ의 국채 보유 잔액은 전체 발행 잔액의 54%에 달한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국채 매입 중단 등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국채 가격 하락)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게 된다. 지난해 4월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단기금리가 2%, 장기금리가 3%까지 오르면 BOJ는 12조 엔의 적자를 기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 지출의 국채 의존도가 3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보유 잔액을 빨리 줄일 수도 없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가 260%에 달하는 환경에서 장기금리 1%라는 기준을 단기간에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명목 GDP가 매년 3~4% 늘어날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되고 믿음이 생겨야 1% 이상으로 시중 금리 상승을 본격적으로 용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여파는 국제 금융시장에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의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 국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돌아오면서 엔화 가치는 뛰고, 미국 국채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BOJ가 통화정책 전환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시장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BOJ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하현욱 논설위원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b>식당 담은 자리</b>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b>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b>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b>발티모아 부근</b> 창고 임대 구하시려는 분 5000-8000	
<b>식당 담은 자리</b>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7,100 SF, 와이타쉬 MD	<b>주18만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b>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b>창고자리 임대</b> 전기시설 완벽 9000 SF, 버지니아헨트	
<b>식당 담은 자리</b>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b>도장</b>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b>상가</b>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b>식당 담은 자리</b>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 부근	<b>사무실</b>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함, 35만불	<b>발티모아 상업건물</b>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b>식당 담은 자리</b> 7800 SF, 임대, VA 에쉬번	<b>사무실 자리 임대</b>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b>주백</b>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먼영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b>식당 제과점 건물 매매</b>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VA 맥클린	<b>사무실 자리 임대</b>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b>콘도</b>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먼영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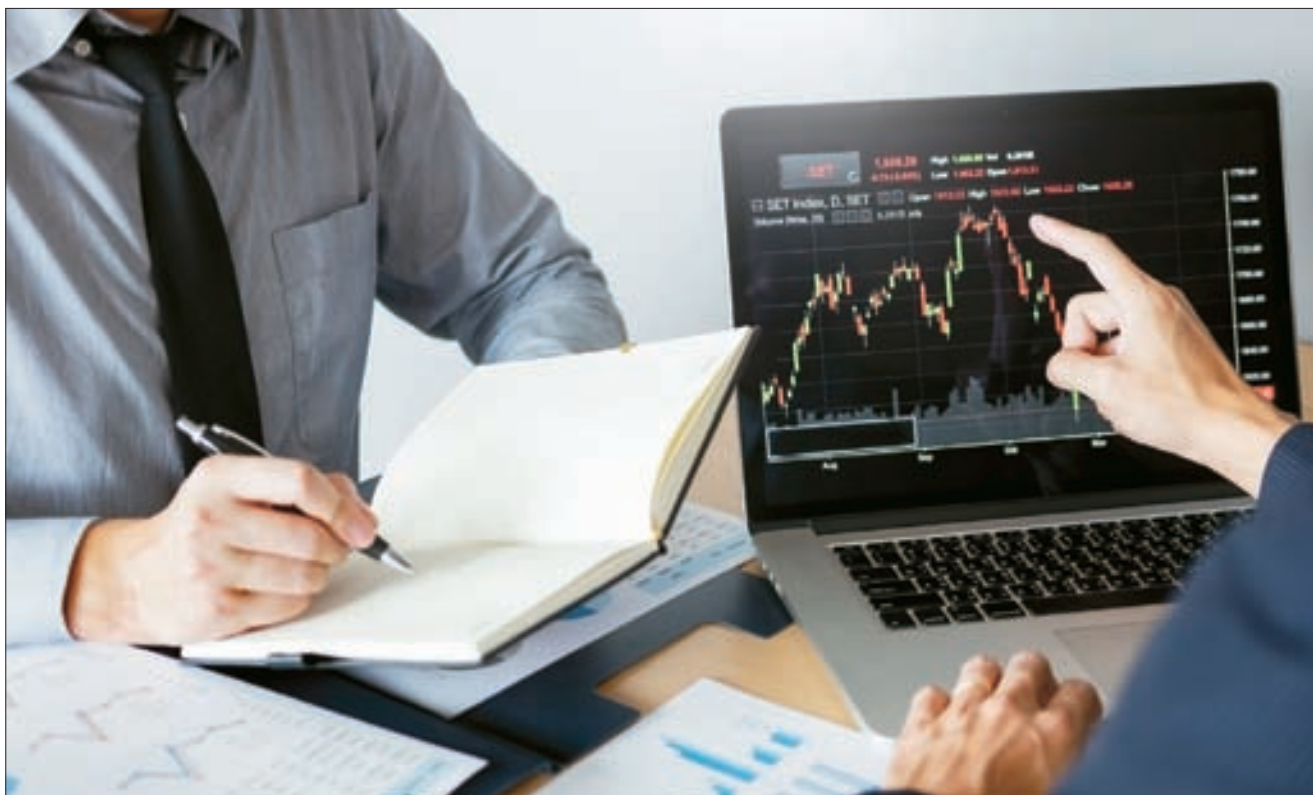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 전술적 자산운용해 리스크 줄이고 수익 높여야

## 잘하는 투자

투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바라는 것은 같다. 투자를 잘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잘하는 투자가 어떤 투자인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 많다. 어떤 투자가 잘하는 투자일까? 흔히들 가진 투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 짚어 보면 바른 투자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능동적이고 전술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벤치마크를 제대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

안전자산(채권)의 비율은 다 다를 수 있다. 이 구성비는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와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뿐이다.

물론, 리스크 선호도와 수용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더 공격적으로 혹은 더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운용전략을 꾸준히 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투자목표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잘나가는' 무엇이 있을 때마다 뒤집어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치주와 채권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할 투자자가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계속한다고 갑자기 그를 쫓을 것인가? 전혀 권장할 만한 접근법이 아니다.

## ▶성적

투자자들은 내 포트폴리오 성적이 항상 시장을 상회하길 원한다. 특히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면 이런 기대감은 더 커진다. 사실 잘못된 기대는 아니다. 잘하는 투자라면 시장성적을 상회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어떤 '시장'과 비교하는지도 중요하다.

왜 '항상' 시장성적을 상회할 수 없을까? '항상' 시장성적을 상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도입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 등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은 물론 비전통적 대체자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돈이 되는 모든 투자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투자 방식도 매수보유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극 공매도(short)를 하기도 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시장환경이 어떻게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사고파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시장'을 앞지르는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여유가 있다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숙지했다는 전제하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이다. 특히 은퇴를 위한 투자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은퇴투자를 하면서 이런 식의 위험도 높은 자산운용 방식을 원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

서 분산투자가 강조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수익률 극대화가 초점이 아니라 리스크의 분산이 초점이 돼야 한다.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투자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항상 시장을 앞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분명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복불능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주는 것은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항상' 시장을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장주기'에 걸쳐 시장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것도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내주는 방식의 투자운용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시장주기는 경기순환과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전체적인 순환주기를 뜻한다. 매번 같은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5~10년 정도에 걸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5~10년은 봐야 객관적인 성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리스크와 수익의 거래

이것만큼 오해가 큰 개념도 드물다. 다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오해가 깊은 부분이다. 투자자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늘 가장 수익률이 잘 나온 것과 비교한다. 그것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등 개별 종목일 수도 있고 나스닥이나 러셀, S&P500 등 시장지수일 수도 있다. 어떤 것에 비교하던 비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은 원하지만, 그에 따르는 잠재적 리스크는 외면한다. 리스크와 수익률 사이에는 늘 거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대체로 높은 리

스크를 수용해야 한다. 리스크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큼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 성향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종목이나 지수, 투자방식 등의 성적표와 자신의 포트폴리오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 이런 비교는 오히려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 ▶벤치마크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걸 보통 '벤치마크'라고 부른다. 나의 포트폴리오가 60/40 포트폴리오라면 60/40 벤치마크와 비교해야 한다. 나스닥과 비교하면 안 되고, S&P500과도 비교하면 안 된다. 나스닥이나 S&P500과 비교하길 원한다면 100% 테크 기업, 주식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위험자산(주식)과

## 5~10년 걸친 중장기적 시장순환 주기 성적 봐야 위험 선호도에 따라 주식·채권 등 분산 비율 결정

## ▶전술적 자산운용

전술적 자산운용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장환경에 대한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산배치에 변화를 주며 운용한다는 기본맥락에서는 동일하다. 보수적 운용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판단 기준이 보수적으로 적용된다. 공격적 운용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판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이다. 수용 손실 폭이 더 크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능동적 자산배치의 핵심역할은 리스크 관리에 있다. 전술적 자산운용 역시 자산유형별 분산배치가 기본이지만 투자전략별 분산배치 역시 중요하게 고려된다. 어떤 부분은 전통적인 전략적 자산배치를 고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투자자 개인의 투자성향이나 투자목적, 투자기간 등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술적 자산운용이라고 해서 '항상' 시장성적을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 5~10년에 걸친 중장기적 시장순환 주기를 도는 동안에는 벤치마크보다 위험도는 줄이고 수익률은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 척추 한방 클리닉

###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외과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 PART 3. 로컬 사업체, 검색 결과에 달려있다?

고객의 눈에 항상 나타나는 상위 랭킹은 나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까? 로컬 사업체의 경우에 크게 성패를 가르는 주요 핵심 열쇠가 로컬 검색이다. 나의 사업체는 고객 핸드폰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찾는 고객 앞에 나타나는 노출과 메시지이다. 검색 시 상위에 뜨는 업체들은 새 고객 흡수와 세일즈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동안 검색 광고와 랭킹 향상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갈림길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생각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가 아니다. 검색에서 경쟁사보다 먼저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한 사업주의 결정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로컬 검색 때 나의 사업체를 고객의 눈앞에 보여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소셜미디어, 둘째는 로컬 SEO, 셋째는 로컬 검색 광고이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와 로컬 SEO를 쉽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다루겠다.

### 1. 예측 어려운 소셜미디어?

거품을 빼려는 마음은 없지만, 소셜 미디어 포스팅의 대부분은 시간 낭비로 판명된다. 인플루언서와 예측도 어렵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부푼 희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업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노출 횟수나 링크 숫자를 보고 시간 낭비였다고 말하는 분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스팅 후수와 무더진 사용자 감각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눈부신 반응 자체가 만만치 않다. 창의성과 유머, 신선함 등 통통 튀는 바이럴 효과로 무장한 포스팅은 혼란된 마인드가 아니면 쉽지 않다는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현실이 소규모 사업체 오너의 한숨으로 바뀌고 있다.

예전처럼 친구나 고객에게 쉽게 퍼지지 않는다. 포스팅 숫자를 현저히 늘려도, 비례적 증폭이 되지 않는 결과도 고민스럽다. 고객 소통 차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알리는 정도로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늘려도 반응이 기대 수준 이하라면,

아까운 시간과 노력 낭비될 수 있다.

### 2. 느리지만 막강한 로컬 SEO (검색엔진 친화적)?

자연 검색에서 상위 랭킹을 선점하는 꿈은 거의 모든 사업주의 가슴에 있다. 실제로 해보는 소수에겐 예측 가능한 결과와 상위 랭킹 선점이라는 큰 선물을 준다. 물론, 두 가지 불편함을 먼저 이해한 후, 자신에게 맞는지 결정하면 된다.

첫째, 사주가 직접 해서 결과를 보긴 어렵다. 기술적 전문 작업의 꾸준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요 시간이다. 광고처럼 즉시 고객 눈앞에 띄지는 않는다.

이 분야는 전문 에이전시에 중장기적으로 맡겨야 한다. 자신에게 편한 월 예산을 정해놓고 투자하면 몇 개월이면 랭킹 향상으로 곧 수확을 얻기 시작한다. 로컬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

한 업종인 경우는 작업량이 더 요구되고 기간도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하면 예측 가능한 실제적 랭킹 향상의 결과를 얻는다. 매월 향상하는 랭킹 향상 리포트와 보며 추가 인풋과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고객이 찾을 때 당신의 사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검색 때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로컬 검색 상위 노출은 구매 고객 숫자를 압도적으로 늘려주고 있다. 지역 사업체의 가장 큰 성과 요인, 바로 로컬 검색에서 당신의 사업체는 지금 어떤가? 다음 시간에는 훨씬 쉽고 빠른 지역 검색 광고에 대해 다루보자.

>스텔비즈니스 세일즈 마케팅 문의,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 세법 상식



윤주호  
CPA

###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 한미 양국 납부 기간 합산 연금 받아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제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제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金的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제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와 사회보장제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제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제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

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제(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플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0202년 부회 임원직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 활기찬 이민자였던 엄마의 조현병

**전쟁 같은 맛**  
그레이스 M 조 지음  
주혜연 옮김  
글항아리



어머니의 삶에 대해 알고 난 뒤 저자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사진은 1970년대 송탄 기차촌 모습. [사진 글항아리]

이 회고록은 고전적으로 표현하면 '사모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의 어머니는 상선의 선원이었던 백인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데리고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이다. 동양인이 거의 없던 워싱턴주 시골 마을에서 '중국여자' 운운하는 편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부지런히 일하며 삶을 일궜다.

딸의 돌잡이 땀 연필을 쥐게 유도하고, 그 자신은 요리를 잘했어도 어린 딸이 무심코 '요리사'가 꿈이라고 했을 땐 실망하며 화를 낸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 딸인 저자는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박사로 인류학·사회학 교수가 됐다. 어쩌면 어머니 바람대로 잘 자란 교포 2세나 훈형 2세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나 이 책은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나 소수자가 거둔 성공담이 아니다. 저자는 여러 시기의 기억을 교차하며 어머니와 그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밀하고도 힘겨웠던 면면을 드러낸다. "사는 동안 내게는 적어도 세 명의 엄마가 있었다"는 대목이 이를 압축한다.

첫째로 그의 유년기 엄마는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저자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각종 음식 장만은 물론이고 옷감을 꿰어다 드레스까지 직접 만들어 입고 지역 교사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 동네 숲에서는 철마다 블랙베리나 각종 버섯을 산더미처럼 채취해 가공하거나 팔았다. 미국 생

활 초기부터 현재의 온갖 요리법을 열심히 익히면서도, 동네 가정에 한국 입양아가 오거나 하면 김치부터 담가 선물했다.

어머니가 달라진 건 저자가 열다섯 살 무렵부터. 환청을 비롯해 조현병 증상이 시작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다른 가족들은 그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고교생이던 저자는 혼자 정신질환 상담시설을 찾아가는 등 별별 방식으로 도움을 구했으나 기대는 번번이 좌절됐다. 그 순간을 저자는 놀랍게도 "내 한(恨)의 시발점"이라는 한국식 표현으로 전한다. 조현병 진단, 특히 그 사회적 요인에 대해 미국 사회는 물론 의학계의 연구와 시선도 지금과 다를 때였다.

이에 앞서 저자는 미국 이주 전 어머니의 삶에 대한 몇몇 사실들을 독자에게 들려준다. 어머니는 1941년생, 어린 나이에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다. 가족의 강제징용으로 일본 오

사카에서 태어났고, 전쟁 통에 부친과 오빠를 잃었다. 세 자매 중 언니는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저자는 어머니나 이모가 단편적으로 들려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학문적 연구 등을 통해 접한 사실들을 결합하며 어머니가 살아왔을 삶을 독자들과 나누어 준다.

이를 통해 전쟁의 비극과 더불어 이후 한국 사회가 망각할 수 없는, 망각해서 안 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 저자는 혼혈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된 해외 입양, 그리고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최근 한국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거론한다. "어머니가 매춘을 하셨어요" 이 책의 중반쯤에 나오는 누군가의 말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어머니가 부산의 미 해군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했으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다. 그 슬픔과 수치심과 충격은 저자를 관련 연구로도 이끄는 데, 이미 여러 해 조현병을 앓아온 어머니

는 외출을 전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낼 때였다. 저자가 "사회적 죽음"이라 부르는 상태였다.

이런 어머니와 딸의 소통에 그나마 매개가 되는 것이 음식. 어머니는 더는 음식을 하지도, 때로는 먹으려 하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뜻과 달리 베이킹을 배우러 다닌 저자는 어머니가 잘하던 블랙베리 파이를 비롯해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하기 시작한다. 어느새 어머니가 불러주는 조리법대로 생태찌개 같은 한국음식도 만든다. 치즈버거도 있다. 훗날 이혼과 별거에 이르기 전, 한국에서 처음 데이트할 때 어머니가 주문한 메뉴이자 그 모습에 아버지가 더욱 반했던 음식이기도 하다.

책 제목의 "전쟁 같은 맛"은 분유를 두고 어머니가 했던 말이다. 가족들이 준비해 놓은 간편식 중에도 분유만큼은 전혀 손대지 않았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 맛은 진절머리가." 저자가 문헌 자료를 통해 알려주는 대로, 분유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주요 원조 식량이었다.

어머니는 예순여섯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저자의 비통함은 상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이 책에도 절절히 드러난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글을 쓰는 내내 어머니를 피해자로만 보는 것도, 이민자들이 미국에 빛을 지고 있으니 이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다른 가족들이 수치스럽게 여겨 말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도 거부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사모곡만 아니라 씻김굿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2021년 미국에서 출간된 전미도서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책이다. 원제 Tastes Like War.

이후남 기자

## 전쟁 흐름 바꾼 장군 그가 남긴 '징비록'

**리지웨이의 한국전쟁**  
매슈 B 리지웨이 지음  
박권영 옮김  
플래닛미디어

기적처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 장군은 6·25전쟁이 낳은 가장 걸출한 영웅이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윌턴 헤리스 워커(1889~1950) 미8군 사령관과 3년의 전쟁 중 2년간가량을 책임졌던 매슈 벅커 리지웨이(1895~1993) 유엔군 사령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은 리지웨이가 1967년에 출간한 자서전이 자 6·25전쟁 징비록(懲毖錄)이다. 출간 56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6·25 발발 73주년이자 1953년 7월 27일 정전 체제 수립 70주년의 해에 나온 점도 의미가 각별하다.

리지웨이는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쟁 중에 사망하자 후임으로 미8군 지휘봉을 잡았다. 1951년 4월 맥아더 사령관이 해임되자 유엔군 사령관도 맡았다. 그가 부임한 시점에 전쟁 상황은 암담했다. 1951년 1·4후퇴 이후 중공군의 대공세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수세에 몰렸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군대 철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리지웨이의 공세 의지와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이 전쟁은 한국의 자유와 국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한국전쟁의 본질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중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냐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며 장병들을 독려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 덕분에 결국 현재의 휴전선까지 전선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리지웨이는 미8군 사령관 부임 직후 패배주의가 만연했던 미군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맥아더 장군 해임 이후 어떻게 유엔군을 지휘했는지, 전쟁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생생하게 서술했다. 또 책에서는 2차 대전 승리 이후 준비 태세가 부족했던 당시 미군 상황, 맥아더 해임을 둘러싼 미·군 관계 논란,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대한 미국의 인식 등도 엿볼 수 있다. 단순히 주요 작전과 전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 전반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장세정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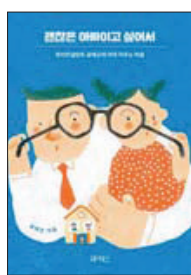
### 책꽂이



**균형의 힘**(권오식 지음, 드림위드에스)=1982년 현대그룹 공채로 입사한 이래 현대건설·현대중공업 등에서 40년 직장 생활을 한 저자의 회고록. 특히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빈 시기를 비롯해 신입사원에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근무하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체 4부 가운데 '예전의 내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란 제목의 2부에 주로 담았다.



**손쉬운 해결책**(제시 싱길 지음, 신해경 옮김, 메멘토)=부제 '자기계발 심리학은 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자존감이나 무의식의 힘, 그릇, 넋지, 파워 포즈 등 미국에서부터 대중화된 심리학의 여러 아이디어들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지, 왜 그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등을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비판적으로 살핀다.



**팬찮은 아با이고 싶어서**(윤태곤 지음, 헤이북스)=정치 컨설턴트이자 마흔둘에 처음 얻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버지의 책.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준비부터 아바가 되고서 알게 된 것들과 함께 아이 키우기의 행복을 전한다. 특히 아이의 돌 이후부터는 아바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역할의 폭을 크게 늘리는 쿼텀 점프가 가능한 시기라고 말한다.



**CIA 분석가가 알려 주는 가짜 뉴스의 모든 것**(신디 L 오티스 지음, 박중서 옮김, 원더박스)=부제는 '가짜 뉴스의 역사부터 해법까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인데, 역사가 흥미롭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은 선택하겠다"고 했던 토머스 제퍼슨도 신문을 통해 정적들을 겨냥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슬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 격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 “한국인, 서로 밀쳐내는 고슴도치 같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에서 한국의 사회적 연결 지표는 41개국 중 38위였다. 생활·교육 수준은 높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80%로 OECD 평균 91%를 밑돌았다. 어쩌다 효와 예,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해온 우리의 관계 지표가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걸까.

‘관계 전문가’ 권수영(57)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한국인은 원래 관계를 중시했는데, SNS(소셜미디어) 등으로 인해 관계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무너졌다”며 그 요인으로 공동체 문화 붕괴, 사회적 기준에 지나치게 엄격한 ‘빽빽한 문화’(tight culture)를 들었다. 한국상담진흥협회 이사장 등을 지낸 그는 저서와 강연을 통해 “한국인의 분노에 감춰진 진짜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 교수는 한국의 관계망 붕괴는 코

로나19 전부터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마을 문화가 사라진 게 상징적이다. 공동체 붕괴는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2015년을 주목했다. 그는 “당시 증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칼부림하는 등 사회갈등과 분노범죄 수위가 높아졌고, 공교육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어 인성교육을 의무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서로의 가시에 찔려 점점 경계하고 밀어내는 고슴도치 처럼,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남·성별·세대별로 나뉘면서 관계의 질이 떨어지고 소외감이 커졌다”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우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빗대 최근의 분노 현상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SNS에 유행했던 ‘혼밥족’ 인증샷을 예로 들었는데,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걸 들기지 않으려고 혼자 밥 먹는 셀카를 찍어 올린 게 시작”이라며 “(인간은) 고통까지 연대할 만큼 소외되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다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크면 타인에게



권수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나를 돌아보는 것”을 인문학적 공동체 문화 회복의 첫 걸음으로 봤다. 권학재 사진전문기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늘어난 고독사도 사회 관계망이 붕괴한 사례로 꼽았는데, “50대 고독사가 70~80대보다 많은 건, 사회 기준에 맞춰 살다가 퇴직 후 가정·사회 등에서 실 자리를 못 찾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해법은 없을까. 권 교수는 “빽빽한

문화를 바꾸려면 인문학적 사고가 중요하다. 인문학의 기본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라며 “남이 가르쳐준 해답을 벗어나 나만의 고유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빽빽한 문화’ 순위에서 모로코·인도네시아·이집트 등이 슬라브 국가에 이어 65개국 중 9위다. 그는 이어 “오늘 얼마나 즐거웠는지,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다고 느꼈는지 돌아보면 된다”며 “가족·친구와 더 공감할 수 있다면 사회적 연결 지표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내 세대 간 장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권 교수는 “관계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아이가 독립된 자아라는 걸 인정해야지 선불리 침범하면 방어벽만 높아진다”며 “대신 ‘힘들 때 원하면 대화 상대가 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라”고 권했다. 이어 “지금 50~60대는 부모에 효도한 마지막 세대다. 대접받길 원할수록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남을 위해 살았다

면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을 성숙하게 가꾸는 일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권 교수는 이런 ‘관계’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인문학 관련 정책이 의미 있다고 짚었다. 외로움 상담센터, 인문 프로젝트 지원, 생활 속 인문학강좌 확대 등이다. 지난해 12월 ‘2023 연결사회 포럼’에선 서울 방학동 50세 이상 주민들의 서로 돌봄 공동체 ‘방학서클’의 실천 사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사례 등이 소개됐다.

권 교수는 “인문 진흥 운동은 마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며 스웨덴 스톡홀름의 사립 대안학교 ‘프리슈셋(Fryshuset)’을 소개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을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로 품은 마을 프로젝트다. 그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회 관계망이 잘 구축되면, 재난 생존자가 비슷한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함께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원정기자

## 손석구 주연 영화 27일 개봉 기자 출신 장강명 동명소설 원작

“내 기사 오보로 만든 거, 니네들 아니지?”

대기업 ‘만전’의 부정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적 당한 신문기자 임상진(손석구)은 만전의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제보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다. 기사를 오보로 몰아간 만전의 조작에 당한 건지, 자신이 특종에 눈이 멀어 만전 경쟁사 사장의 피해 망상증에 휘둘린 건지, 어느 쪽도 확실할 수 없어 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27일 개봉하는 영화 ‘땃글부대’(감독 안국진)는 가짜뉴스·갑질광고가 일상화한 사회의 혼란상을 소재 뿐 아니라 형식에도 영리하게 활용한 작품이다.

신문기자 출신인 장강명 작가가 2015년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을 계기로 쓴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온 청년들이 땃글부대 ‘팀알렙’을 결성해 대기업 여론몰이에 가담하는 과정을 팀알렙 멤버



영화 ‘땃글부대’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장강명이 쓴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버 찻타캣(김동휘)의 내부 고발 방식으로 그렸다. 그의 제보를 의심하는 임상진이 마음을 돌리는 건, 거짓이 인터넷을 떠도는 팀알렙의 몰입 공작 증거들 때문이다.

팀알렙은 허위로 스태프 임금 체불 논란을 일으켜 개봉 영화를 망하게 하고, 대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인격 살해도 서슴지 않는다. 이 모든 게 온라인상 땃글·게시물로 이뤄진다.

정·재계와 언론 간 유착 음모론을 사실감 있게 그린 영화 ‘내부자들’(2015)의 MZ판이라 할 만하다. 가짜 땃글로 한 사람을 온라인 스타로 만들었다가 갑자기 몰락시키는 일화는 팀알렙이 처음 등장한 장 작가의 단편 ‘삶어녀 죽이기’(2012)도 연상된다.

영화의 세부 사건과 전개 방식은 원작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 각본·연출을 맡은 안국진 감독이 추가 취재를 녹

여 넣었다. 데뷔작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5)에서 ‘흙수저’ 여성의 몰락과 복수담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생생하게 풍자했던 그다.

지난 15일 ‘땃글부대’ 언론시사 후 간담회에서 그는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실화에 가깝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영화가 허구라는 자막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한 법적 이유로 넣었다”고 말했다.

만전의 경쟁업체 전파 방해 사건이 한 예다. 임상진이 정적 처분을 받게 된 바로 그 ‘오보’ 속 사건이다. 2004년 실제 한 대기업 직원들이 비슷한 사건에 연루돼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2002년 온라인상에서 처음 촛불집회를 제안했다고 소개되는 네티즌 ‘양파’도 실존 모델이 있다.

그렇다고 영화를 그대로 믿으면 뒤통수 맞는다. “100% 진실보다 진실이 섞인 거짓이 더 진짜 같다”는 찻타캣의 대사처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온라인 게시물의 속성을 영화 형식에도 가져왔다.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천만영화 ‘범죄도시2’(2022) 등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배우 손석구의 몰입감 있는 호연이 돋보인다. 15일 간담회에서 그는 “웃픈 현실 사회를 보여준 잘짜인 풍자극으로 완성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지옥 시즌2’의 김성철, ‘D.P.’와 웨이브 드라마 ‘악한영웅’의 홍경,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의 김동휘 등 팀알렙 3인방 배우도 눈에 띈다. 장난처럼 시작한 땃글 조작으로 암흑 세계에 발 들이는 청년 세대를 찰진 호흡으로 그려 영화에 리듬감을 더했다. 나원정기자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 멜랑콜리한 겨울 풍경? 자연의 숭고함을 말하다

“무슨 풍경화가 이렇게 차갑고 살벌해?”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가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1774~1840)의 ‘얼음 바다’(1823~24)를 보는 동시에 어떤 평론가는 이 그림이 그림 속 북극 얼음과 함께 녹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약담을 했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그전까지 나름대로 잘 팔렸지만 이 그림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달 그의 탄생 250주년 대규모 회고전을 시작한 독일 함부르크 쿤스트 할레(미술관)도 이 그림과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를 간판 소장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미술관서 250주년 회고전**  
프리드리히는 황량하고 신비로운 겨울 풍경을 많이 그렸다. 그래서 그의 그림들은 슈베르트 가곡 연작 ‘겨울나그네’ 음반 커버로 애용되곤 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의 ‘얼음 바다’는 그 중에서도 특히 파격적인 그림이다. 북극해를 떠 다니는 두꺼운 얼음판, 즉 부빙이 화면을 지배한다. 일부는 서로 부딪혀 쌓여서 뾰족한 산을 이뤘는데 그 날카로운 단면이 눈으로만 봐도 아리고 시릴 정도다. 오른쪽에는 부빙에 충돌해 엎어진 배가 보인다. 부서진 얼음 조각들이 충돌 당시의 힘의 여파를 보여주지만, 충돌을 일으킨 배는 이제 무력하게 얼음에 잠겨져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은 인간의 도전을 압도하는 자연의 무한한 힘, 그것에 대한 공포와 경이로움, 즉 ‘숭고(sublime)’의 느낌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와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아름다움’과 ‘숭고’를 구분했는데, 쾌감만 있는 ‘아름다움’과 달리 ‘숭고’는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것에 대한 경탄의 쾌감과 두려움의 불쾌감을 동시에 수반한다고 했다. 그러한 숭고의 미학은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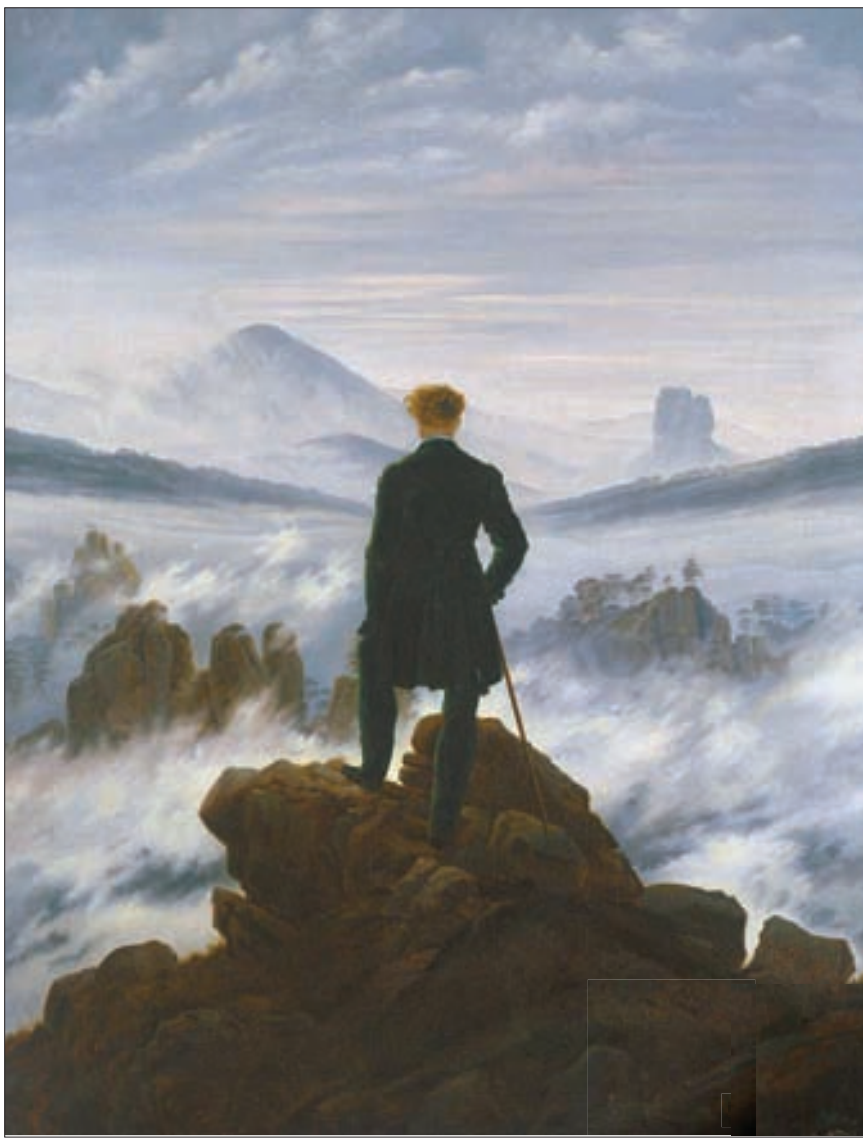
어떤 이들은 ‘얼음 바다’가 한없는 절망을 나타냈다고 보기도 한다. 그림의 초기 제목이 ‘희망 호의 난파’였던 것처럼, ‘희망’이라는 이름의 배가 빙산을 만나 좌초되고 회복 불가

능하게 얼음장 밑으로 가라앉는 현실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림을 그린 당시 프리드리히는 모처럼 자리가 난 드레스덴 아카데미 정교수직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상태였다. 나폴레옹 전쟁(1803~1815)이 끝난 후 독일 지역이 구체제로 회귀하려는 분위기에서 벌어진 일이다. 프리드리히는 독일 지역을 침략한 나폴레옹에 반대했지만 자유주의 성향이었고 독일 지역이 나폴레옹 이전의 제후국 모임이 아닌 새로운 통일국가로 거듭나길 원했다. 그러나 보수반동적 분위기에서 독일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낭만주의 열풍은 시들어가고 본인도 승진에 실패했으니 그 암울함이 ‘얼음 바다’로 구현되었다는 것이다.

**13살때 동생 사망, 죄책감·우울 평생 느껴**  
‘얼음 바다’가 프리드리히의 오랜 트라우마인 동생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는 13살 때 동생과 함께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맞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 뛰어든 동생이었다. 그때부터 죄책감과 우울함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음 바다’를 보면 강의 얼음판이 깨져 소년들이 물에 빠졌던 프리드리히의 어린 시절 참사 현장 모습도 이와 비슷했을 것 같다. 또한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상태로 차갑게 얼어붙은 그림 풍경이 그 날 이후 작가의 내적 감정의 풍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이 그림을 그렸을 때처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에는 그 트라우마의 풍경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났으리라.

하지만 그림을 소장한 함부르크 미술관은 그림 상단에 무거운 회색 구름이 깔리며 푸른 하늘이 작게나마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미술관은 말한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초월을 암시함으로써 죽음 이후 영생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프리드리히의 다른 풍경화를 보아도, 일방적인 절망과 우울과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의 그림에는 무한한 우주와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듯한 거대한 자연이 나타나고,



카스파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1817-18). [사진 함부르크 쿤스트할레·EMI]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뒷모습도 종종 나타난다. 그의 또다른 대표작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처럼, 거대하고 경이로운 자연을 볼 때 인간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인간과 범속함을 뛰어넘는 것을 접하는 기쁨과 그것에 비해 인간이 너무나 작고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슬픔 말이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에는 그 복합적 감정이 깃들어 있다. 눈앞에서 동생을 허무하게 잃은 것 때문에 그에게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슬픔은 더욱 사무쳤을 것이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와 누이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중국의 시인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그러한 슬픔을 ‘유한한 나의 존재도 결국 시공간적 무한과 이어지는 자연의 일부 아닌가’라는 자연 일체 사상으로 털어낸다. 반면에 프리드리히는 서구인답게 신과의 결합에서 구원을 찾는다. 그런데 그에게 신은 멀리 있지 않고 범신론(pantheism)적으로 자연에 깃

들어 있다. 이것은 동생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 하던 소년 프리드리히가 목사이며 시인인 코제가르텐을 만나 얻은 생각이었다. ‘신성함이란 자연을 통해 나타나며 자연에 대한 경험이 곧 신에 대한 경험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그의 예술과 삶을 평생 지배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서는 종종 산속에 교회가 있고 우뚝 솟은 침엽수와 교회 첨탑이 대구(對句)를 이룬다.

프리드리히가 작가로서 활약하기 시작한 시점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또다른 대표작 ‘바닷가의 수도사’(1808~1810)를 그렸다. ‘왜 인간은 이토록 작고 유한한가, 어떻게 무한과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가족의 죽음으로 가장 첨예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미술사학자 로버트 로젠블럼이 말한 대로 이 그림의 거대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조그만 수도사의 대조는 ‘무한히 거대한 만유의 신과 무한히 작은 피조물’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다.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음반 커버로 애용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바닷가의 수도사’와 무척 비슷한 구도와 느낌의 현대 예술작품을 지금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현대 사진 거장 구분창의 회고전에 나온 ‘시간의 초상’ 연작(1998~2001)이다. 언뜻 보면 황량한 바다 풍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교토의 오래된 절의 먼지 쌓인 회벽을 촬영한 것이다. 수평선 위 구름처럼 보이는 것은 오랜 세월의 흔적인 먼지들이다. 공교롭게도 이 작품 또한 작가가 부친의 타계 후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방황하다가 찍게 된 것이다. 후시 프리드리히의 ‘바닷가의 수도사’를 염두에 두었는지 질문하니 작가는 “이 연작을 만들 때 직접 떠올리지는 않았지만, 독일 유학 시절에 프리드리히의 작품을 많이 보았고 그의 영원성에 대한 질문과 숭고의 미학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왔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프리드리히는 현대의 미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화가로도 유명하다. 안개 낀 몽환적 풍경으로 유명한 한국의 이기봉 작가도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이 세상과 그림에 대한 내 생각을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250주년 회고전을 열고 있는 함부르크 미술관은 그에게 영감을 받은 현대 미술가들의 세션을 따로 마련하기까지 했다. 여기 나온 작품들 중에는 프리드리히의 ‘얼음 바다’ 및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와 모두 연결되는 줄리앙 샤리에르의 ‘푸른 화석 엔트로피 이야기’가 있다. 작가가 북극해의 빙산에 올라 8시간 동안 가스 토치로 발밑의 얼음을 녹이는 퍼포먼스를 한 것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인데, “인간의 시간과 지질학적 시간의 대결이라는, 인간이 이길 희망 없는 싸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자연 개입으로 결국 인간이 먼저 멸망할 지구온난화를 풍자하는 작품이다.

이처럼 프리드리히는 현대까지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고 있는데, 이는 그의 작품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유한과 영원의 관계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숭고의 미학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소영 기자**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 3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 + 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베일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6701 Democracy Blvd., #300      13001 I St, NW #400E  
 Fairfax, VA 22030      Bethesda, MD 20817      Washington DC 20005

# MLB 스타도, 야구팬도 '추억 한보따리'

스타들 광장시장 찾고 한우파티  
다저스 감독 "치어리더 놀라웠다"  
선수끼리 "내 우상" "사인해줘요"  
다르빗슈, 팬 카페 직접 방문도

1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기념 사진을 찍은 팀 코리아 선수들. 2 자신의 팬인 이광희씨의 카페를 찾은 다르빗슈 유(오른쪽). 3 정민철 팀 코리아 코치(오른쪽)와 산더르 보하르츠.  
[뉴스, 이광희씨 소셜미디어, 정민철]



◆평생 추억 쌓은 야구팬들  
MLB 스타들의 팬서비스도 눈에 띄었다. 샌디에이고 투수 다르빗슈 유는 평소 자신의 열성팬으로 유명한 이광희씨를 만나기 위해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카페를 예고도 없이 찾았다. 이씨는 "다르빗슈가 찾아오다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실력만큼이나 인성이 뛰어난 선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다르빗슈를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 사연은 MLB닷컴을 통해 미국에도 전달됐다.

"한국의 치어리딩(응원) 문화를 흥미롭게 지켜봤다."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말이다.  
MLB 스타에게도, 야구팬에게도 평생 추억으로 남을 만한 일주일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MLB를 대표해 한국을 찾은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20일과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개막 2연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4차례의 평가전과 MLB 개막 2연전이 펼쳐진 고척돔은 일주일 내내 축제 분위기였다. 2015년 11월 개장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고척돔에 몰렸다. 팀 코리아와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가 상대로 나선 연습경기에는 평균 1만명 가량의 팬들이 찾았고, 20일과 21일 개막전에는 관중석(총 1만6000석)이 가득 들어찼다.  
◆K컬처 즐긴 MLB 스타들  
서울시리즈를 가장 마음껏 만끽한 주인공은 MLB 스타들이었다. 이들은 입국 당일인 지난 15일부터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했

다. 샌디에이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조 머스그로브, 매니 마차도 등은 광장시장과 광화문·강남 등의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불거리와 한국 음식을 즐겼다. 숙소가 있는 여의도 부근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졌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강남의 한 고깃집을 예약해 한우 파티를 열기도 했다.  
선수들과 함께 내한한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과 윌 스미스, 제임스 아문텐 등의 아내는 강남의 한 화장품 매장을 찾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뷰티 제품을 한보따리씩 안은 채 기념사진을 찍어

화제가 됐다.  
한국의 야구 문화도 MLB 관계자들에게 색다르게 보였던 모양이다. MLB와 달리 치어리더가 주도하는 응원이다. 이번 서울시리즈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응원단은 KBO리그 구단의 응원가를 차용해 메이저리거들에게 안성맞춤 응원곡을 선물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이런 응원 문화는 처음이다.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다"면서 "특히 치어리더들이 경기 내내 응원하는 장면은 놀라웠다. 한국 야구팬들의 열정을 느꼈다"고 밝혔다.

MLB 스타들과 맞대결한 프로야구 선수들과 지도자들도 흐뭇한 추억을 만들었다. 팀 코리아를 이끈 류중일 감독은 "나도 오타니 사인을 받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냈고, 포수 손성민은 경기 도중 마차도에게 "당신이 내 우상"이라고 고백했다. 마차도는 한국의 유망주 포수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2000년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시절 뉴욕 메츠와의 MLB 월드투어 평가전에 출전했던 정민철 코치는 "그때 리키 헨더슨과 마이크 피아자를 삼진으로 잡았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번 서울시리즈가 우리 후배들에게도 귀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고봉준 기자**

## 프리먼 홈런공 맞고도 멀쩡... 고척돔 깜짝스타 'K전광판'

MLB 서울시리즈서 크기·화질 뽐내  
맨시티 홈구장에도 공급한 제작사

지난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 LA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평가전.  
1회 초 LA 다저스 프레디 프리먼의 타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 전광판을 때렸다. 하지만 전광판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했다.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전면부 모듈을 특수 설계한 덕분이었다.  
고척돔은 MLB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모든 걸 바꿨다. 2015년 개장 이후 노후한 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그라운드 및 내부 시설은 물론 조명까지 하나 하나 손봤다. 하지만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설치한 '쌍둥이 전광판'만은 그대로 유지했다. 가로 28.32m×세로 12m(337.2㎡) 사

이즈로 기존 전광판(172.5㎡)의 두 배 가까운 크기로 좌우에 설치된 데다 풀 HD급(1872×800) 화질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프리먼의 홈런 타구 덕분에 견고함까지 입증됐다. 전광판을 제작한 유엔길 삼익전자공업 부분부장은 "개발 테스트 당시 피칭머신을 사용해 최고 시속 100km까지 충격을 줬는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리즈에서도 전광판 하드웨어는 그대로 사용했다. 대신에 노출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운영 시스템은 새로 만들었다. MLB 사무국이 KBO리그와 다른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속을 마일과 km로 동시에 표기했다. 유 이사는 "MLB 운영 프로그램을 국내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였다. 삼익전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처음엔 MLB 측에서 '한국 기업이 할 수 있을까'라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업무 협의를 하면서 개발 노하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개발 완료까지 총 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간단한 MLB 사무국도 국내 팀과의 평가전을 지켜본 뒤 엄지를 치켜세웠다.  
1969년 설립된 삼익전자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광판 전문 제작사다. 55년 동안 직접 개발한 기술력을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홈구장 에티하드 스타디움에도 전광판을 공급했다. 현재 KBO리그가 열리는 9개 구장 중 5곳(잠실·고척·광주·대구·창원)의 전광판을 만들었다.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대전드림파크에도 전광판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효경 기자**

▶1면 '엔비디아'에서 이어집니다  
엔비디아 칩 가격 1억 갈 수도

업계에서는 B100·B200 칩 1개의 가격이 5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달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개당 1억원이 넘는 AI 칩이 등장하는 셈이다.  
B200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 TSMC가 생산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TSMC 파운드리 매출의 11%를 차지한 엔비디아의 비중이 TSMC의 기존 1위 고객사 애플(25%)과 5년 이내에 비스해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모바일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며 주도 기업은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지만, TSMC 전성기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HBM(고대역폭메모리)도 관심사다. B200 칩 하나에는 5세대 HBM인 HBM3E 8개가 탑재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B200 공개에 맞춰 HBM3E 8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이달 말부터 공급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밝

혔다. 마이크론 역시 지난달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 역시 오는 3분기를 본격적인 HBM3E 양산 시점으로 계획하고 '엔비디아 뿔기' 총력전에 나섰다.  
한편,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AI인 '칩 디자이너 붓'을 강조해 소개했다. 황은 "우리는 사실상 AI 파운드리다. TSMC가 칩을 위탁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AI 모델을 위탁 설계해주는 파운드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GPU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자체 칩을 설계하려는 기업 고객의 수요까지 잡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이다.  
기조연설 마지막에는 엔비디아가 직접 훈련한 애완동물 크기의 소형 로봇 '오렌지'와 '그린'이 걸어 나왔다. 황 CEO는 "여러분은 엔비디아의 영혼을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이라며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임을 알렸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b>Bowie</b></p> <p>싱글홈</p>	<p>COMING SOON</p> <p><b>Columbia</b></p> <p>싱글홈</p>	<p>COMING SOON</p> <p><b>Millersville</b></p> <p>\$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p>	<p>COMING SOON</p> <p><b>Perry Hall</b></p> <p>싱글홈, 방3, 화2.5</p>	<p>UNDER CONTRACT</p> <p><b>Ellicott City</b></p> <p>\$689,000 싱글홈, 랜저 스타일, 내부수리 좋은 학교, 0.75 에이커</p>
<p>COMING SOON</p> <p><b>Cockeysville</b></p> <p>싱글홈, 방4, 화2.5, 내부수리중</p>	<p>UNDER CONTRACT</p> <p><b>Columbia</b></p> <p>싱글홈, 방4, 화4, 차고</p>	<p>UNDER CONTRACT</p> <p><b>Millersville</b></p> <p>싱글홈, 방4, 화4, 차고</p>	<p>UNDER CONTRACT</p> <p><b>Rockville</b></p> <p>싱글홈, 방4, 화2</p>	<p>COMING SOON</p> <p><b>Cooksville</b></p> <p>싱글홈</p>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을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b>Elkridge</b></p> <p>월 \$2,800 타운홈 방4, 화장실3, 차고1</p>	<p>RENTED</p> <p><b>Baltimore</b></p> <p>월 \$2,400 타운홈 방4, 화장실4</p>	<p>RENTED</p> <p><b>Germantown</b></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RENTED</p> <p><b>Glen Burnie</b></p> <p>월 \$1,850 콘도 방3, 화2, Top Floor</p>	<p>COMING SOON</p> <p><b>Hanover</b></p> <p>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COMING SOON</p> <p><b>Odenton</b></p> <p>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범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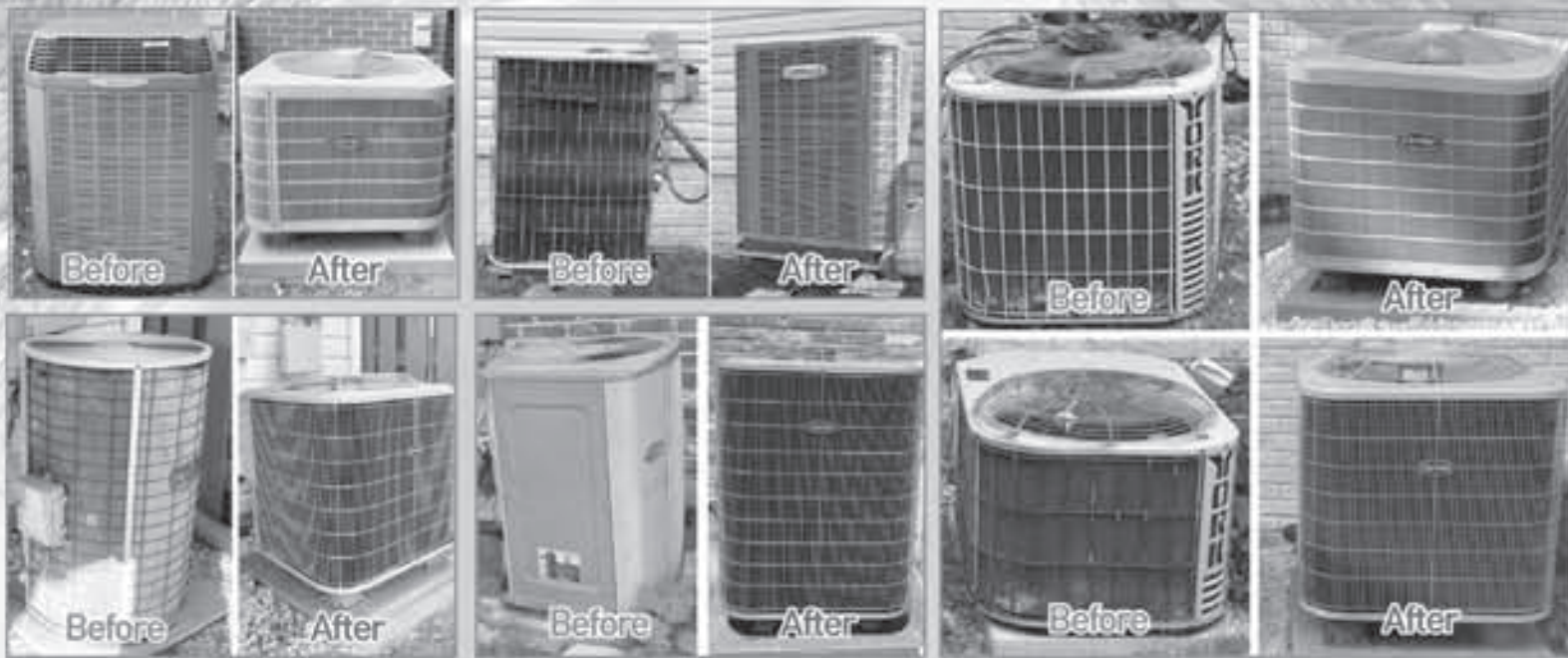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i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 703.929.9601

## 보석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 마이클 장

NMSI Inc. NMLS #201332

-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멸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NLANDMANAGEMENT.COM

**임업 멸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멸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멸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멸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e in touch with (someone) ; ~와 연락을 유지하다, 연락이 닿다

(Dan is talking to his friend Marty ~)

(댄이 친구마티와 얘기한다~)

Dan: Did you hear what happened to Alex?
댄: 알렉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Marty: No I haven't been in touch with him for a few days.

마티: 아니 며칠동안 알렉스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냈거든.

Dan: He broke his leg playing softball.

댄: 소프트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Marty: Oh that's terrible.

마티: 이런 세상에.

Dan: Now he has to put up with a cast on his leg for a few weeks.

댄: 몇 주동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지내야 돼.

Marty: Maybe he's a little old to play softball.

마티: 소프트볼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들은 건가.

Dan: It's too late to worry about that.

댄: 그런 걱정 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은데.

Marty: How did it come about?

마티: 어떻게하다 그런 거야?

Dan: He slid into second base and collided with

the second baseman.

댄: 2루에 미끄러졌는데 2루수하고 부딪혔대.

Marty: Thanks for letting me know. I'll call him tonight.

마티: 알려줘서 고마워. 오늘 저녁 알렉스한테 전화할게.

기억할만한 표현

▶ put up with: ~를 견디다 참고 지내다

"It's difficult putting up with loud noise when you're trying to study."

re trying to study."

(공부할 때는 시끄러운 소리를 참기가 힘든 법이죠.)

▶ came about: ~가 생겼다 ~일이 나다

"His desire to learn English came about in high school."

(그가 영어를 배우려는 마음은 고등학교 시절 생겼답니다.)

▶ let (someone) know: ~에게 알리다

"I'll let you know when I'm ready to leave."

(떠날 준비가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낱말퀴즈

Crossword grid with 27 numbered squares.

가로열쇠

(1)만 이랑의 푸른 물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른 바다. (3)흥하고 망함, 웅성함과 쇠퇴함. ~와 부귀빈천이 물레바퀴 돌듯 한다. 흥□□□ (6)풀을 쓸 때 휘젓는 막대 (8)조개의 껍데기 (10)등불을 끄.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가 넘으면 ~을 해야 한다 (11)연못가나 무논에서 자라며 어린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독특한 향기 때문에 매운탕 등에 곁들여진다 (13)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함 (15)불꽃처럼 대단한 기세. ~을 토하다 (17)날카롭고 단단한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내어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딱따구리 등의 새 (19)그릇,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형견 (20)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22)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함 (26)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됨. 토요일이 무명조개의 속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조가비 안에 넣는 순간 무명조개가 딱 다물고 부리를 난 놔주자, 서로 다투는 틈을 타서 어부가 둘 다 잡았음. □부□□ (27)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섬. 무□□□

세로열쇠

(1)경축하거나 기뻐하는 뜻으로 두 손을 높이 들며 외치는 말. 대한민국 ~ (2)명태의 창자로 담긴 젓갈 (4)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 (5)힘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들어서 약함. 신경 ~ (6)강물 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 (7)사회생활을 하는 곤충. 허리가 가늘죠 (8)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 (9)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사증 (10)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12)서로 교차하는 도로들을 입체적으로 만든 시설. 인터체인지 (14)온도계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유리 대롱 부분 (16)연애나 정사에 관한 소문 (17)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서 만든 술. 막걸리 (18)국물을 바득하게 잡아 끊인 찌개나 찜 (19)예전에, 대문 안에 죽 벌여서 지어 주로 하인이 거쳐하던 방 (21)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23)사돈의 아내. 안사돈 (24)상반신은 사람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과 같다는 상상의 바다 동물 (25)바다에 이는 물결. ~야 어찌란 말이나/입은 물같이 까딱 않는데/~야 어찌란 말이나/날 어찌란 말이나(유치환/그리움)

스도쿠

3x3 Sudoku grid with numbers.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x3 Sudoku grid with numbers.

① 워싱턴 중잉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method.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무경험자 가능  
San Jose지역, 가 55번  
(714)552-5714

스시/일본국수 식당

변화된 사평물안, 4000SF  
BBQ와 데리아기 시설완비  
전체리모델링, 트리아기 위생단주  
가격 23만 (네고가능)  
기술전수 (206)499-0507

**꿈** 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간단하고 빠른 용자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SBA 7(a) 용자 기계장비 담보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10년 상환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야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야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p to 40% 할인  
**천공산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입 가격 판매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간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결핵·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 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극지극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유관 도안역사관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The JoongAng Los Angeles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올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 중 일월만 인증 UL®
- 침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극 탄소 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환제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쿼 \$379 트윈 \$229   쿼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쿼 \$419 트윈 \$299   쿼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